

4. 2014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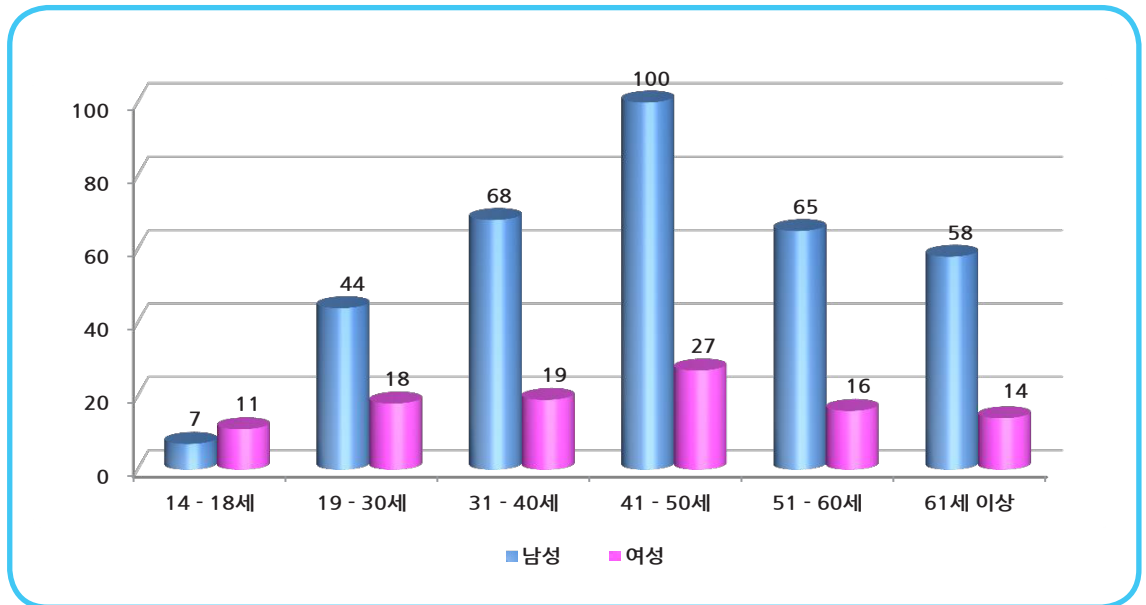
가. 살인

〈표 - 17〉 살인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성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 - 18세	7	2.0	11	10.5	18	4.0	13	2.5	2	3.2	15	2.6
19 - 30세	44	12.9	18	17.1	62	13.9	53	10.4	3	4.8	56	9.7
31 - 40세	68	19.9	19	18.1	87	19.5	93	18.2	18	28.6	111	19.3
41 - 50세	100	29.2	27	25.7	127	28.4	168	32.8	22	34.9	190	33.0
51 - 60세	65	19.0	16	15.2	81	18.1	132	25.8	16	25.4	148	25.7
61세 이상	58	17.0	14	13.3	72	16.1	52	10.2	2	3.2	54	9.4
미상	0	0.0	0	0.0	0	0.0	1	0.2	0	0.0	1	0.2
계	342	100.0	105	100.0	447	100.0	512	100.0	63	100.0	575	100.0

〈그림 - 19〉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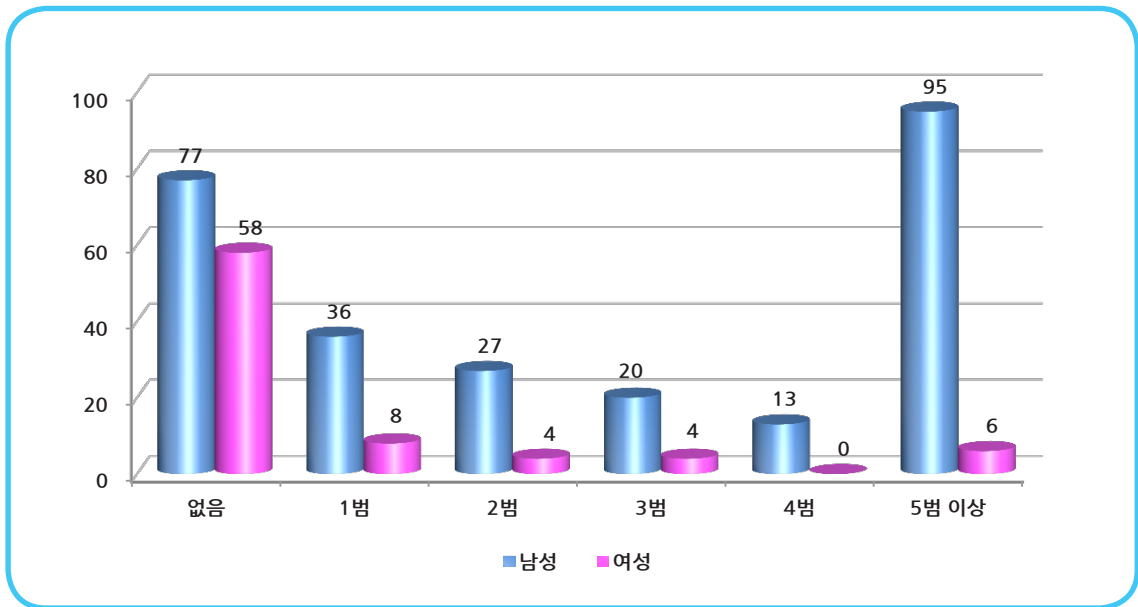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자는 남성이 76.5%로 여성(23.5%)의 3.3배를 차지하며, 살인미수 등 범죄자도 남성이 89.0%로 여성(11.0%)의 8.1배를 차지함
- 남성 살인기수범죄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9.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9.9%, 50대 19.0%로 나타남. 남성 살인미수 등 범죄자도 40대가 32.8%로 가장 많은 가운데, 50대 25.8%, 30대 18.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살인기수범죄자의 경우도 40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8.1%, 20대 17.1% 순으로 나타남. 여성 살인미수 등 범죄자는 40대 34.9%, 30대가 28.6%, 50대 25.4% 순으로 나타남

〈표 - 18〉 살인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성별 전과 횟수	기수						미수 등					
	남 성		여 성		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없음	77	22.5	58	55.2	135	30.2	94	18.4	26	41.3	120	20.9
1범	36	10.5	8	7.6	44	9.8	51	10.0	6	9.5	57	9.9
2범	27	7.9	4	3.8	31	6.9	33	6.4	5	7.9	38	6.6
3범	20	5.8	4	3.8	24	5.4	32	6.3	5	7.9	37	6.4
4범	13	3.8	0	0.0	13	2.9	28	5.5	2	3.2	30	5.2
5범	95	27.8	6	5.7	101	22.6	222	43.4	5	7.9	227	39.5
미상	74	21.6	25	23.8	99	22.1	52	10.2	14	22.2	66	11.5
계	342	100.0	105	100.0	447	100.0	512	100.0	63	100.0	575	100.0

〈그림 - 20〉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 살인기수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여성(55.2%)이 남성(22.5%)에 비해 전과 없음 비율이 2.5배 높은 반면,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27.8%)이 여성(5.7%)에 비해 4.9배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살인미수 등 범죄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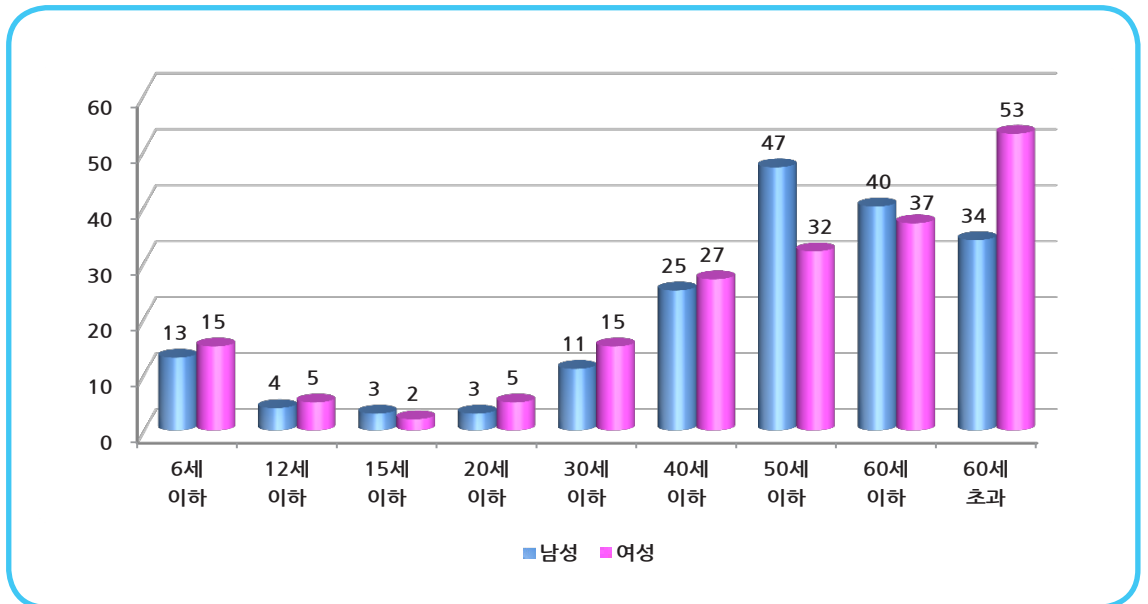
〈표 - 19〉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건, %

성 별 연 령	기 수						미수 등					
	남 성		여 성		계		남 성		여 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3	7.2	15	7.9	28	7.5	4	1.2	3	1.4	7	1.3
12세 이하	4	2.2	5	2.6	9	2.4	1	0.3	0	0.0	1	0.2
15세 이하	3	1.7	2	1.0	5	1.3	2	0.6	2	0.9	4	0.7
20세 이하	3	1.7	5	2.6	8	2.2	6	1.8	11	5.2	17	3.1
30세 이하	11	6.1	15	7.9	26	7.0	27	8.2	21	10.0	48	8.9
40세 이하	25	13.9	27	14.1	52	14.0	65	19.7	32	15.2	97	17.9
50세 이하	47	26.1	32	16.8	79	21.3	99	30.0	69	32.7	168	31.1
60세 이하	40	22.2	37	19.4	77	20.8	85	25.8	52	24.6	137	25.3
60세 초과	34	18.9	53	27.7	87	23.5	41	12.4	19	9.0	60	11.1
미 상	0	0.0	0	0.0	0	0.0	0	0.0	2	0.9	2	0.4
계	180	100.0	191	100.0	371	100.0	330	100.0	211	100.0	541	100.0

※ 성별 불상은 제외함

〈그림 - 21〉 살인기수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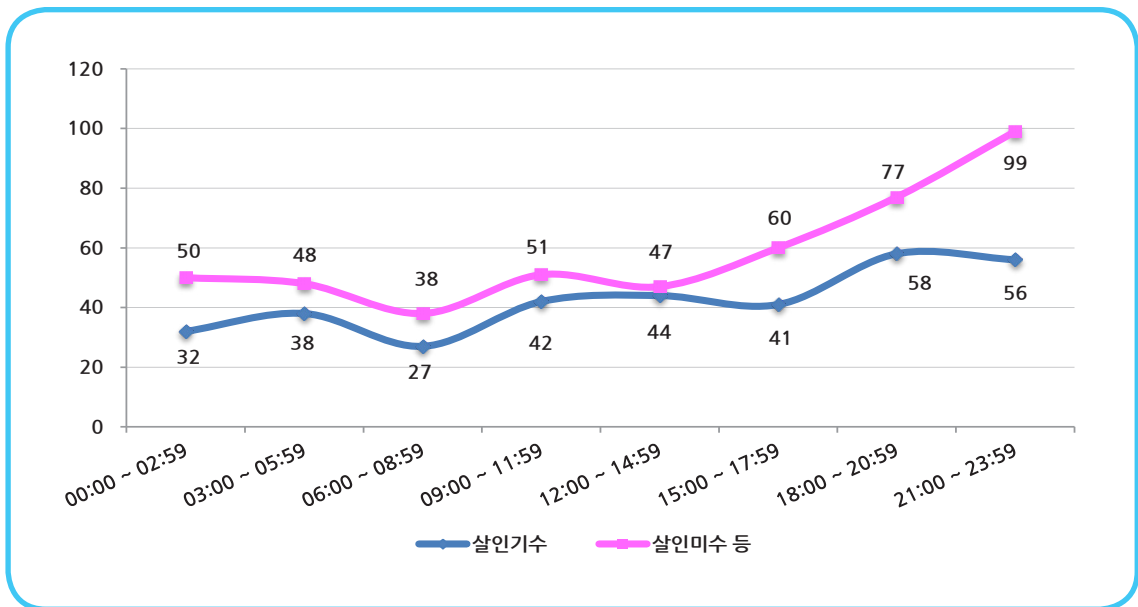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48.5%, 여성이 51.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살인미수 등 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 61.0%, 여성이 39.0%로 남성이 1.6배 더 많음
- 살인기수범죄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초과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40세 초과 50세 이하가 21.3%, 50세 초과 60세 이하 20.8%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살인미수 등 범죄의 피해자는 40세 초과 50세 이하 31.1%, 50세 초과 60세 이하가 25.3%, 30세 초과 40세 이하가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20> 살인범죄 발생시간 분포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기수		미수 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32	8.6	50	9.2	82	9.0
03 : 00 ~ 05 : 59		38	10.2	48	8.9	86	9.4
06 : 00 ~ 08 : 59		27	7.3	38	7.0	65	7.1
09 : 00 ~ 11 : 59		42	11.3	51	9.4	93	10.2
12 : 00 ~ 14 : 59		44	11.8	47	8.7	91	10.0
15 : 00 ~ 17 : 59		41	11.0	60	11.1	101	11.1
18 : 00 ~ 20 : 59		58	15.6	77	14.2	135	14.8
21 : 00 ~ 23 : 59		56	15.1	99	18.3	155	17.0
미상		34	9.1	71	13.1	105	11.5
계		372	100.0	541	100.0	913	100.0

<그림 - 22> 살인범죄 발생시간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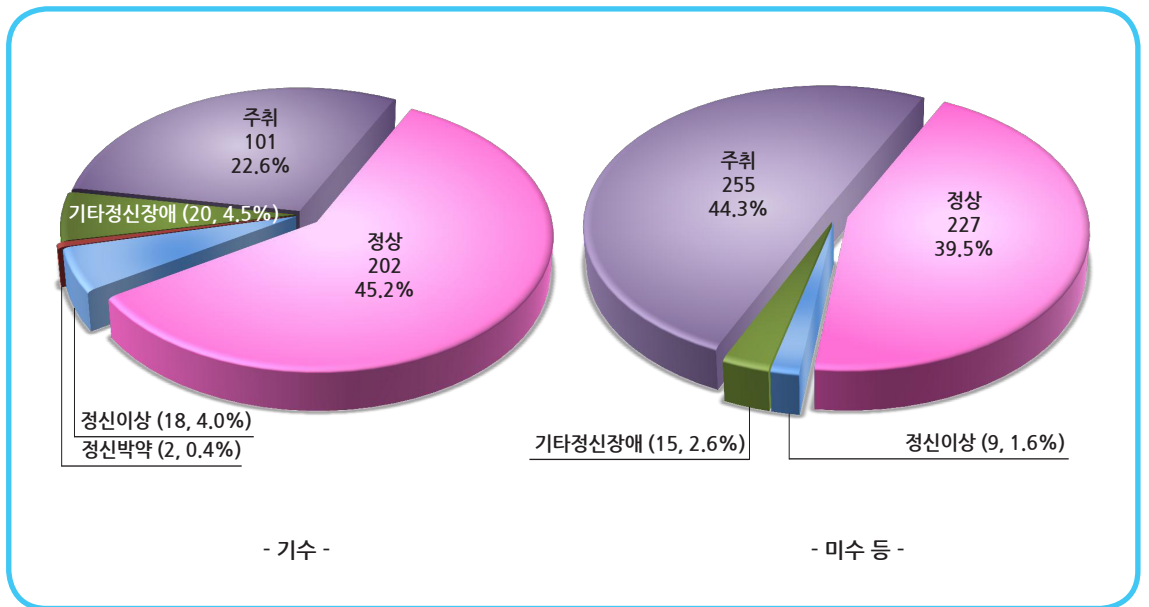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는 전체적으로 18 : 00~20 : 59 시간대에 15.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밤 시간인 21 : 00~23 : 59에 15.1%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의 경우 21 : 00~23 : 59 시간대에 가장 많이(18.3%) 발생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6 : 00~08 : 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고, 이후 증가와 감소를 보이다가 12 : 00~14 : 59 시간대부터 계속 증가하여 21 : 00~23 : 59 시간대에 최고치에 이룸

〈표 - 21〉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명, %

정신상태	구분	기수		미수 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정 상		202	45.2	227	39.5	429	42.0
정 신 이 상		18	4.0	9	1.6	27	2.6
정 신 박 약		2	0.4	0	0.0	2	0.2
기 타 정 신 장 애		20	4.5	15	2.6	35	3.4
주 취		101	22.6	255	44.3	356	34.8
미 상		104	23.3	69	12.0	173	16.9
계		447	100.0	575	100.0	1,022	100.0

〈그림 - 23〉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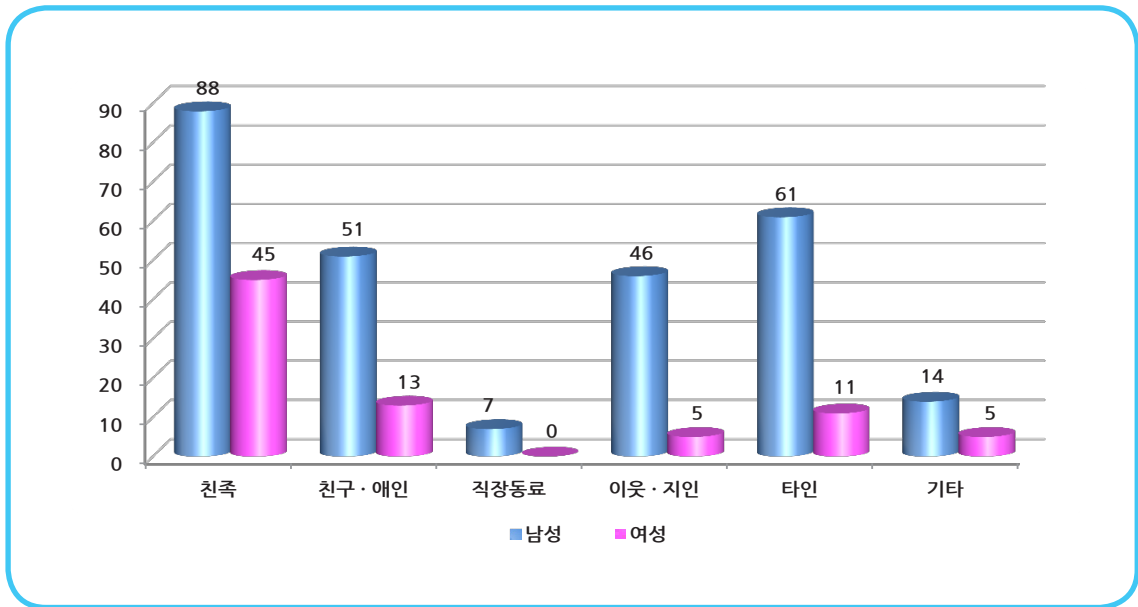
- 살인범죄자의 범행 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범죄자는 살인기수 4.4%(정신이상 4.0%, 정신박약 0.4%), 살인미수 등은 1.6%(정신이상 1.6%, 정신박약 0.0%)으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살인기수 범죄의 22.6%, 살인미수 등 범죄의 44.3%로 높게 나타남

〈표 - 22〉 살인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기수				미수 등					
	남 성		여 성		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88	25.8	45	42.8	133	29.8	80	15.6	23	36.5	103	17.9
친구·애인	51	14.9	13	12.4	64	14.3	74	14.4	6	9.5	80	13.9
직장동료	7	2.0	0	0.0	7	1.6	36	7.0	0	0.0	36	6.3
이웃·지인	46	13.5	5	4.8	51	11.4	98	19.2	8	12.7	106	18.4
타인	61	17.8	11	10.5	72	16.1	145	28.3	11	17.5	156	27.1
기타	14	4.1	5	4.8	19	4.3	23	4.5	1	1.6	24	4.2
미상	75	21.9	26	24.8	101	22.6	56	10.9	14	22.2	70	12.2
계	342	100.0	105	100.0	447	100.0	512	100.0	63	100.0	575	100.0

〈그림 - 24〉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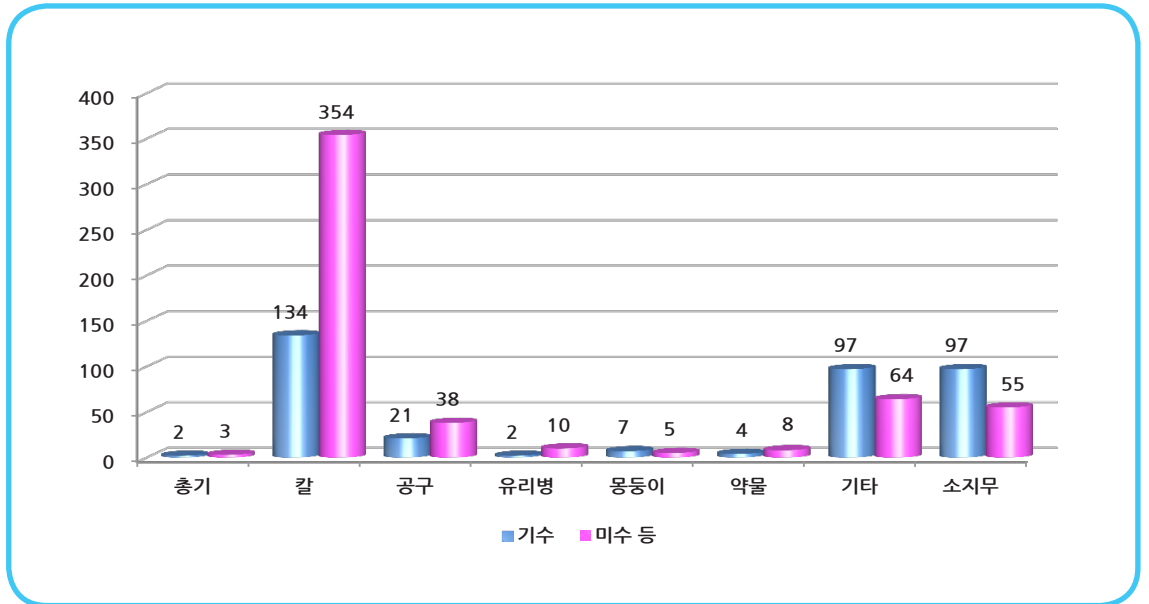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29.8%), 타인(16.1%), 친구·애인(14.3%)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반면 살인미수 등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27.1%), 다음으로 이웃·지인(18.4%), 친족(17.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살인기수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비율은 25.8%인데 반해, 여성은 42.8%로 남성에 비해 1.7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살인미수 등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28.3%), 여성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36.5%)가 가장 많았음

〈표 - 23〉 살인범죄 범행도구

단위 : 건, %

범행도구	구분	기수		미수 등		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총	기	2	0.5	3	0.6	5	0.6
	칼	134	36.8	354	65.9	488	54.2
공	구	21	5.8	38	7.1	59	6.5
유	리	2	0.5	10	1.9	12	1.3
몽	등	7	1.9	5	0.9	12	1.3
약	물	4	1.1	8	1.5	12	1.3
기	타	97	26.7	64	11.9	161	17.9
소	지	97	26.6	55	10.2	152	16.9
	무						
계		364	100.0	537	100.0	537	100.0

〈그림 - 25〉 살인범죄 범행도구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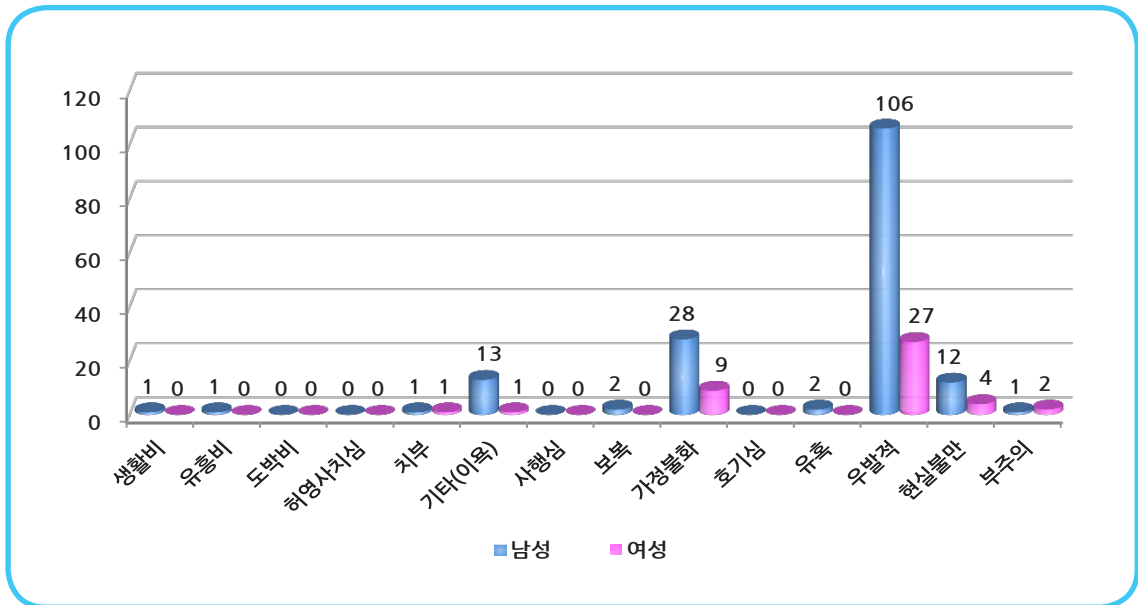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의 범행도구를 살펴보면, 칼을 사용한 경우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공구를 사용한 경우가 5.8% 등으로 나타남.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26.6%로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의 범행도구 역시 칼을 사용한 경우가 6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공구를 사용한 경우가 7.1%,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2% 순으로 나타남

〈표 - 24〉 살인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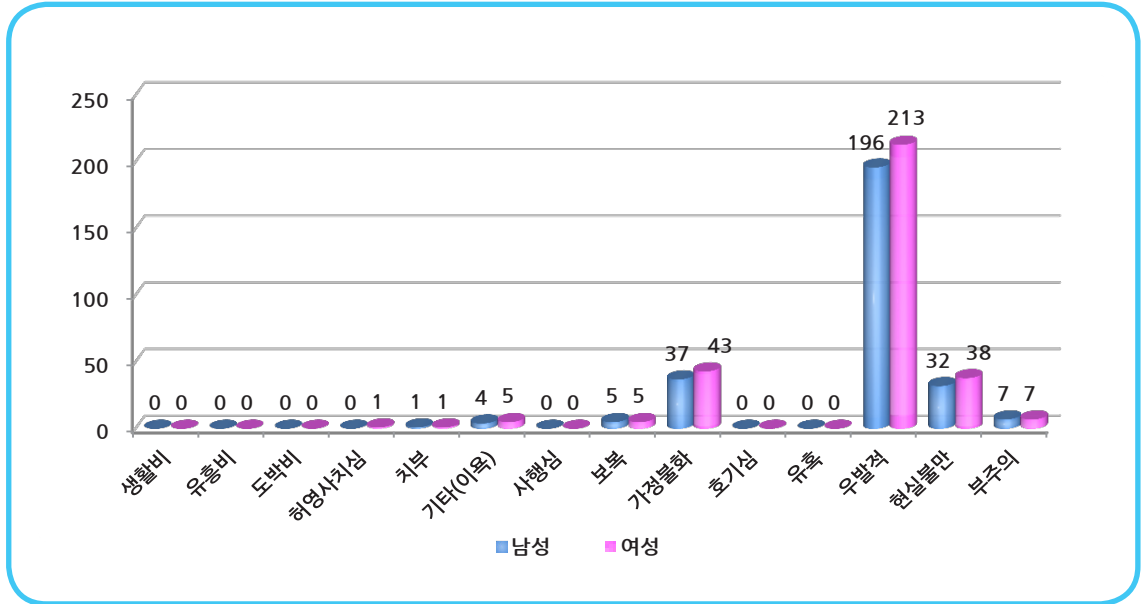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분		기 수						미 수 등					
			남 성		여 성		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1	0.3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유혹비	1	0.3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도박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허영사치심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1	0.2
치부	1	0.3	1	1.0	2	0.4	1	0.2	0	0.0	0	0.0	1	0.2
기타(이욕)	13	3.8	1	1.0	14	3.1	4	0.8	1	1.6	5	0.9	5	0.9
사행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보복	2	0.6	0	0.0	2	0.4	5	1.0	0	0.0	5	0.9	5	0.9
가정불화	28	8.2	9	8.6	37	8.3	37	7.2	6	9.5	43	7.5	43	7.5
호기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유혹	2	0.6	0	0.0	2	0.4	0	0.0	0	0.0	0	0.0	0	0.0
우발적	106	31.0	27	25.7	133	29.8	196	38.3	17	27.0	213	37.0	213	37.0
현실불만	12	3.5	4	3.8	16	3.6	32	6.3	6	9.5	38	6.6	38	6.6
부주의	1	0.3	2	1.9	3	0.7	7	1.4	0	0.0	7	1.2	7	1.2
기타	99	28.9	35	33.3	134	30.0	174	34.0	18	28.6	192	33.4	192	33.4
미상	76	22.2	26	24.8	102	22.8	56	10.9	14	22.2	70	12.2	70	12.2
계	342	100.0	105	100.0	447	100.0	512	100.0	63	100.0	575	100.0	575	100.0

〈그림 - 26〉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단위 : 명)



〈그림 - 27〉 살인미수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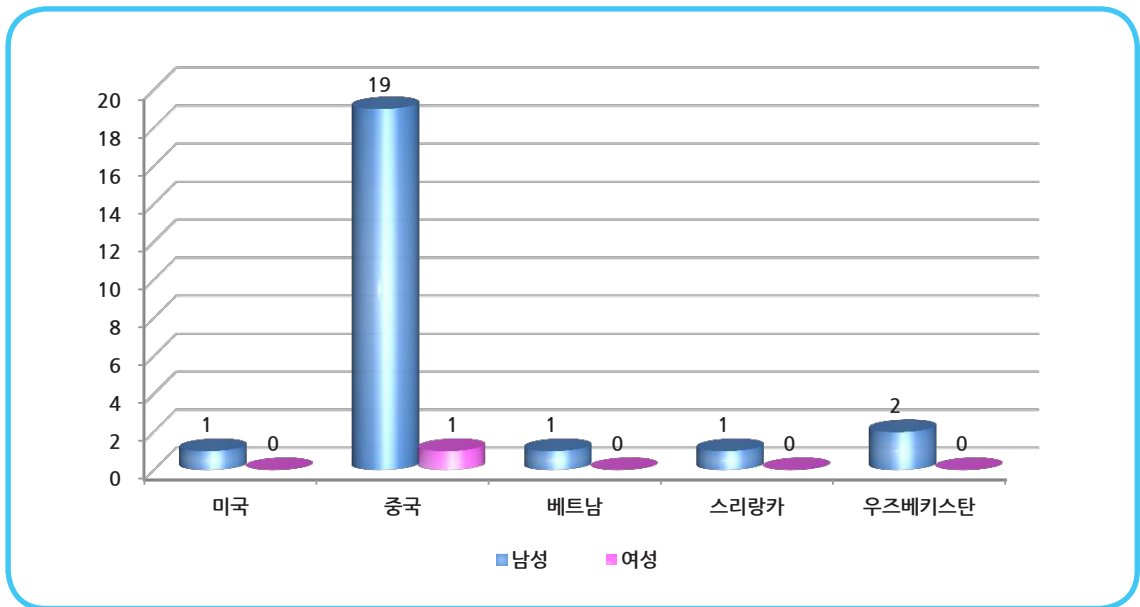
- 살인미수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경우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가 8.3%, 현실불만이 3.6%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범행동기도 기수범과 같은 순으로 나타나는데, 우발적인 경우가 37.0%로 가장 높고, 가정불화가 7.5%, 현실불만이 6.6% 순으로 나타남
- 살인미수범죄자 범행동기별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범행동기별 순서는 우발적, 가정불화, 현실불만 순으로 같음. 남성(32.6%)이 여성(28.1%)에 비해 우발적인 비율이 조금 더 높게 (1.2배)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경우도 남녀 모두 우발적, 가정불화, 현실불만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남성(38.3%)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여성(27.0%) 보다 1.4배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가정불화(9.5%)나 현실불만(9.5%)의 비율이 남성(각 7.2%, 6.3%)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 25> 살인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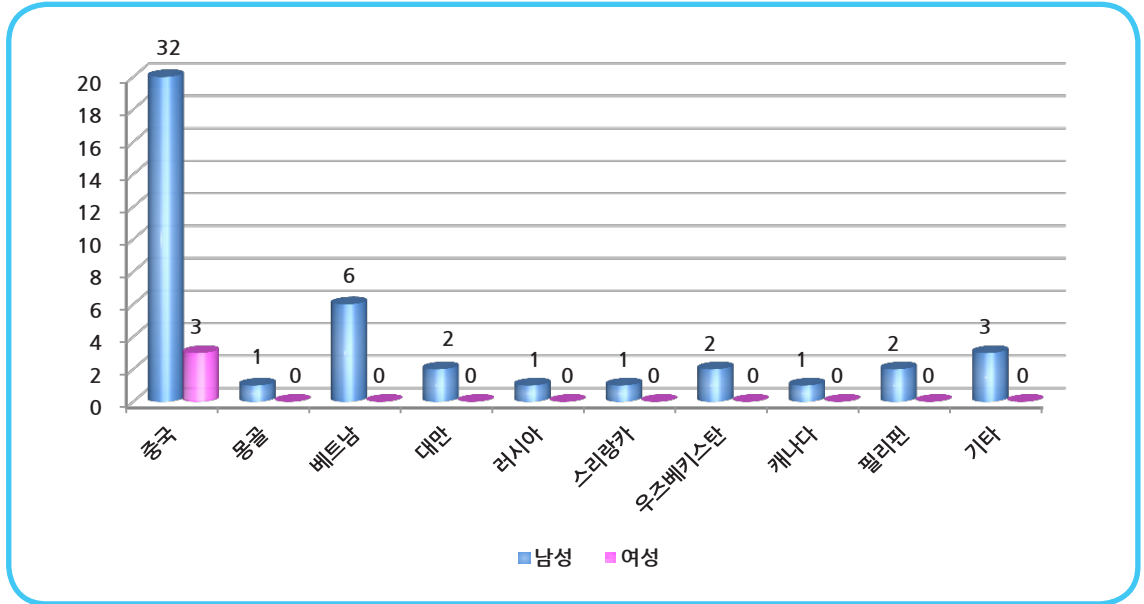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국적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317	92.7	104	99.0	421	94.2	461	90.0	60	95.2	521	90.6
미국	1	0.3	0	0.0	1	0.2	0	0.0	0	0.0	0	0.0
중국	19	5.6	1	1.0	20	4.5	32	6.3	3	4.8	35	6.1
일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몽골	0	0.0	0	0.0	0	0.0	1	0.2	0	0.0	1	0.2
베트남	1	0.3	0	0.0	1	0.2	6	1.2	0	0.0	6	1.0
태국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만	0	0.0	0	0.0	0	0.0	2	0.4	0	0.0	2	0.3
러시아	0	0.0	0	0.0	0	0.0	1	0.2	0	0.0	1	0.2
방글라데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스리랑카	1	0.3	0	0.0	1	0.2	1	0.2	0	0.0	1	0.2
우즈베키스탄	2	0.6	0	0.0	2	0.4	2	0.4	0	0.0	2	0.3
인도네시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캐나다	0	0.0	0	0.0	0	0.0	1	0.2	0	0.0	1	0.2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필리핀	0	0.0	0	0.0	0	0.0	2	0.4	0	0.0	2	0.3
파키스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	0.3	0	0.0	1	0.2	3	0.6	0	0.0	3	0.5
총계	342	100.0	105	100.0	447	100.0	512	100.0	63	100.0	575	100.0

<그림 - 28>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한국 제외, 단위 : 명)



<그림 - 29> 살인미수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한국 제외, 단위 : 명)



- 살인기수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94.2%, 외국인에 의한 살인이 5.8%를 차지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경우 한국인이 90.6%를 차지하고, 외국인의 비율이 9.4%로 나타남
- 살인기수범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범죄자 다음으로 중국 20명(4.5%), 우즈베키스탄 2명(0.4%), 미국, 베트남, 스리랑카 각 1명(0.2%)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35명(6.1%), 베트남 6명(1.0%), 대만,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각 2명(0.3%) 순으로 나타남
- 살인기수범죄자의 성별 국적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남성기수범죄자 총 342명 중 외국인 25명(7.3%)으로 중국 19명(5.6%), 우즈베키스탄 2명(0.6%), 미국, 베트남, 스리랑카 각 1명(0.3%) 순으로 나타남. 여성 살인기수범죄자의 경우 한국인 104명(99.0%), 그리고 중국 1명(1.0%)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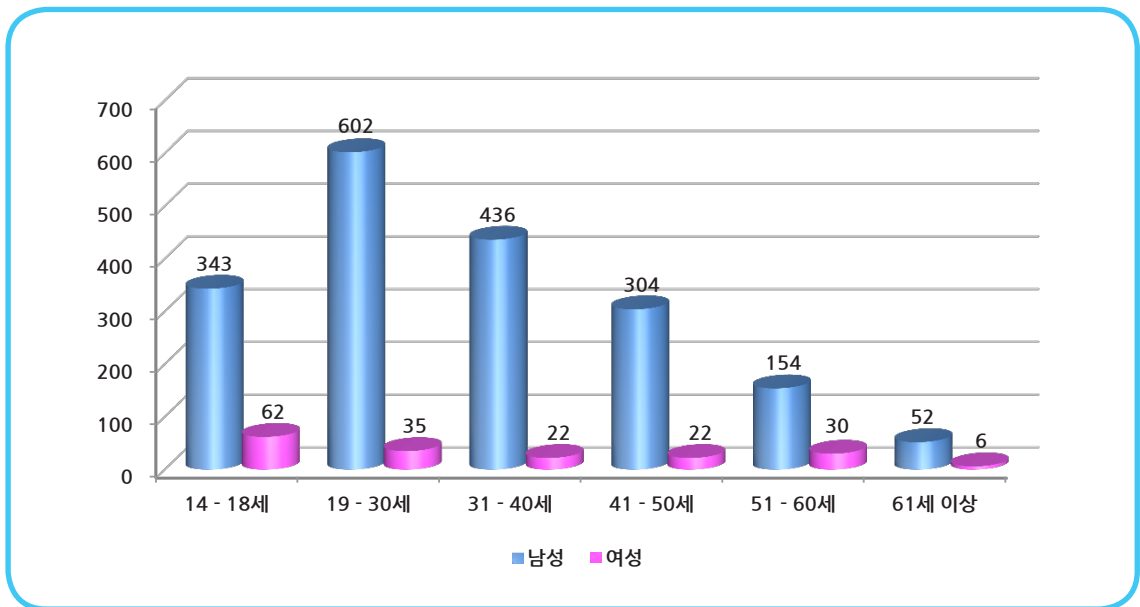
나. 강도

〈표 - 26〉 강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구분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0	0.0	0	0.0	0	0.0
14세 - 18세	343	18.1	62	33.7	405	19.5
19세 - 30세	602	31.8	35	19.0	637	30.7
31세 - 40세	436	23.0	22	12.0	458	22.0
41세 - 50세	304	16.1	22	12.0	326	15.7
51세 - 60세	154	8.1	30	16.3	184	8.9
61세 이상	52	2.7	6	3.3	58	2.8
미상	3	0.2	7	3.8	10	0.5
계	1,894	100.0	184	100.0	2,078	100.0

〈그림 - 30〉 강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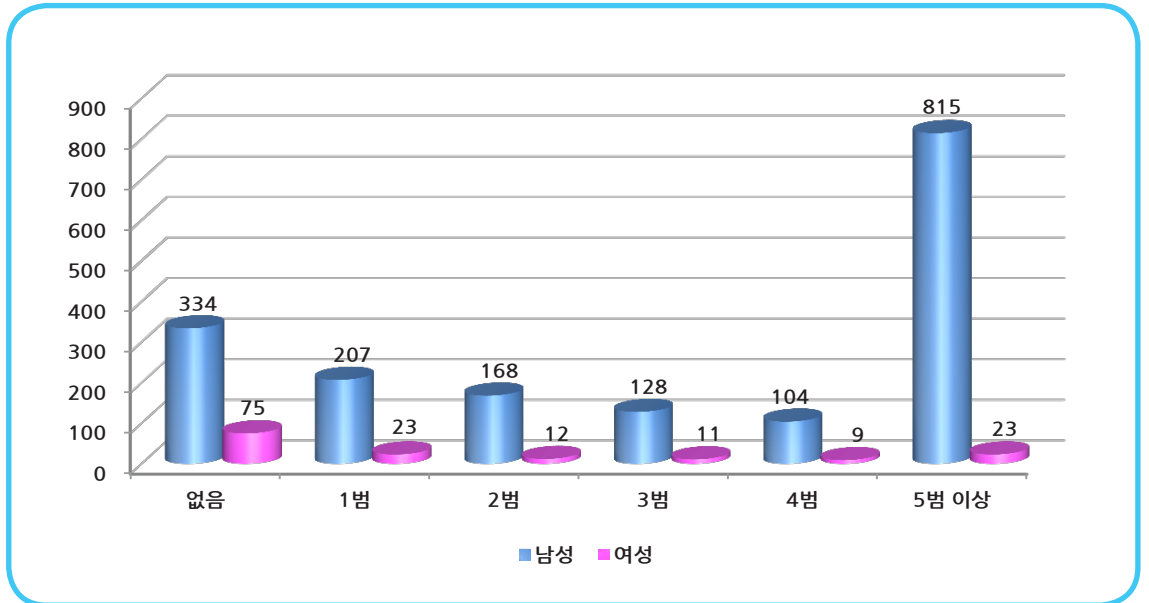
- 강도범죄자는 남성이 91.1%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강도범죄자(8.9%)의 10.2배에 달함
-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19세-30세)가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30대 22.0%, 10대 중·후반(14세-18세) 19.5% 순으로 높고, 40대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남성 강도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 연령분포와 비슷한 비율 20대, 30대, 10대 중·후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 강도범죄자의 경우 10대 중·후반(14세-18세) 비율이 33.7%로 전체 여성 강도범죄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20대(19세-30세) 비율이 19.0%, 50대가 16.3%로 나타남

〈표 - 27〉 강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성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334	17.6	75	40.8	409	19.7
1범		207	10.9	23	12.5	230	11.1
2범		168	8.9	12	6.5	180	8.7
3범		128	6.8	11	6.0	139	6.7
4범		104	5.5	9	4.9	113	5.4
5범 이상		815	43.0	23	12.5	838	40.3
미상		138	7.3	31	16.8	169	8.1
계		1,894	100.0	184	100.0	2,078	100.0

〈그림 - 31〉 강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 강도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17.6%)에 비해 여성(40.8%)의 전과 없음 비율이 2.3배 높은 반면,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43.0%)이 여성(12.5%)에 비해 3.4배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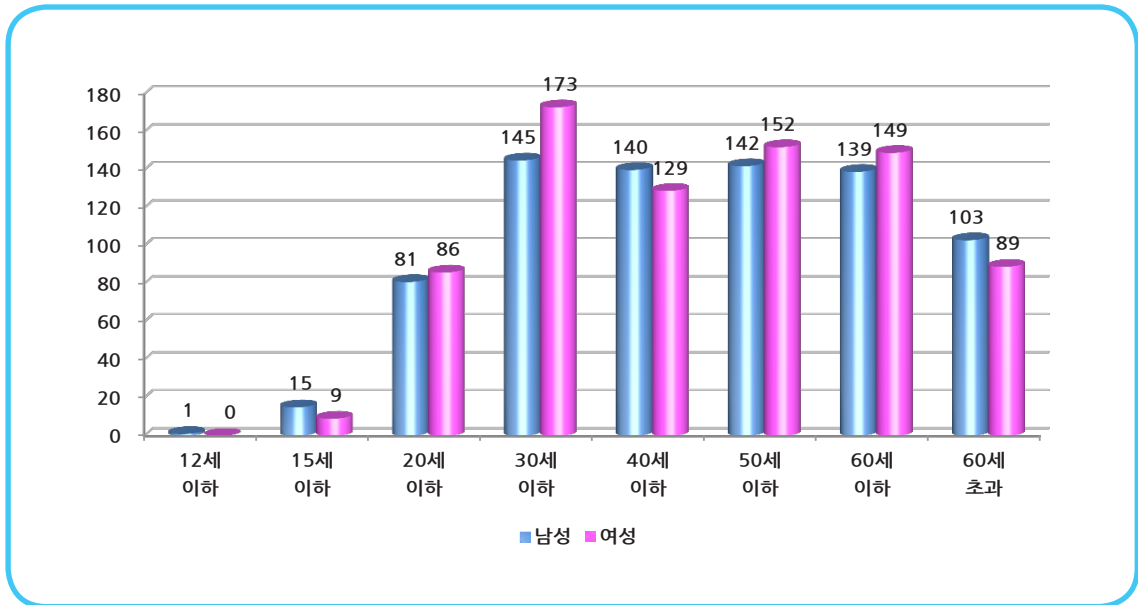
〈표 - 28〉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구분 연령	남 성		여 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12세 이하	1	0.1	0	0.0	1	0.1
15세 이하	15	2.0	9	1.1	24	1.5
20세 이하	81	10.5	86	10.9	167	10.7
30세 이하	145	18.9	173	22.0	318	20.4
40세 이하	140	18.2	129	16.4	269	17.3
50세 이하	142	18.5	152	19.3	294	18.9
60세 이하	139	18.1	149	18.9	288	18.5
60세 초과	103	13.4	89	11.3	192	12.3
미 상	2	0.3	1	0.1	3	0.2
계	768	100.0	788	100.0	1,556	100.0

※ 피해자 성별 불상은 제외함

〈그림 - 32〉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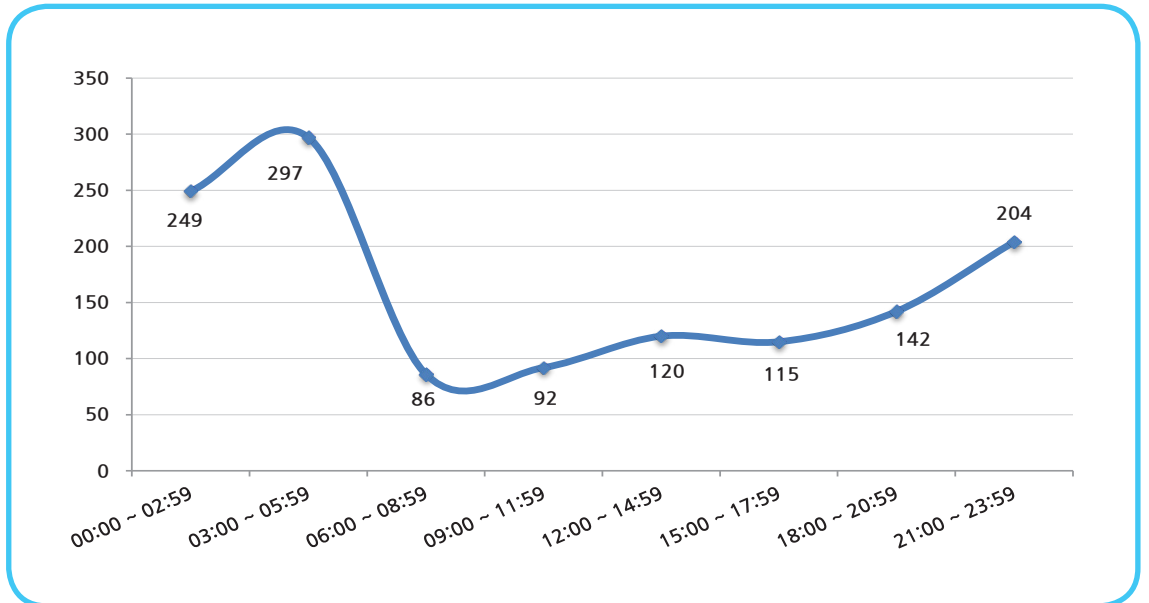
- 강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49.4%, 여성이 50.6%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강도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20.4%, 50세 이하가 18.9%, 60세 이하가 18.5%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강도범죄 피해자 중 남성과 여성 모두 30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 29〉 강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249	15.7
03 : 00 ~ 05 : 59		297	18.7
06 : 00 ~ 08 : 59		86	5.4
09 : 00 ~ 11 : 59		92	5.8
12 : 00 ~ 14 : 59		120	7.6
15 : 00 ~ 17 : 59		115	7.3
18 : 00 ~ 20 : 59		142	9.0
21 : 00 ~ 23 : 59		204	12.9
미상		281	17.7
계		1,586	100.0

〈그림 - 33〉 강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 건)



- 강도범죄는 새벽 시간대인 03 : 00~05 : 59 시간대에 1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 새벽 시간대 이후 발생빈도는 급격히 감소하여 아침 시간대인 06 : 00~08 : 59 시간대에서 5.4%, 아침 시간대인 09 : 00~11 : 59 시간대에서 5.8%로 나타났고, 15 : 00~17 : 59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새벽 시간에 최고치를 보임

<표 - 30> 강도범죄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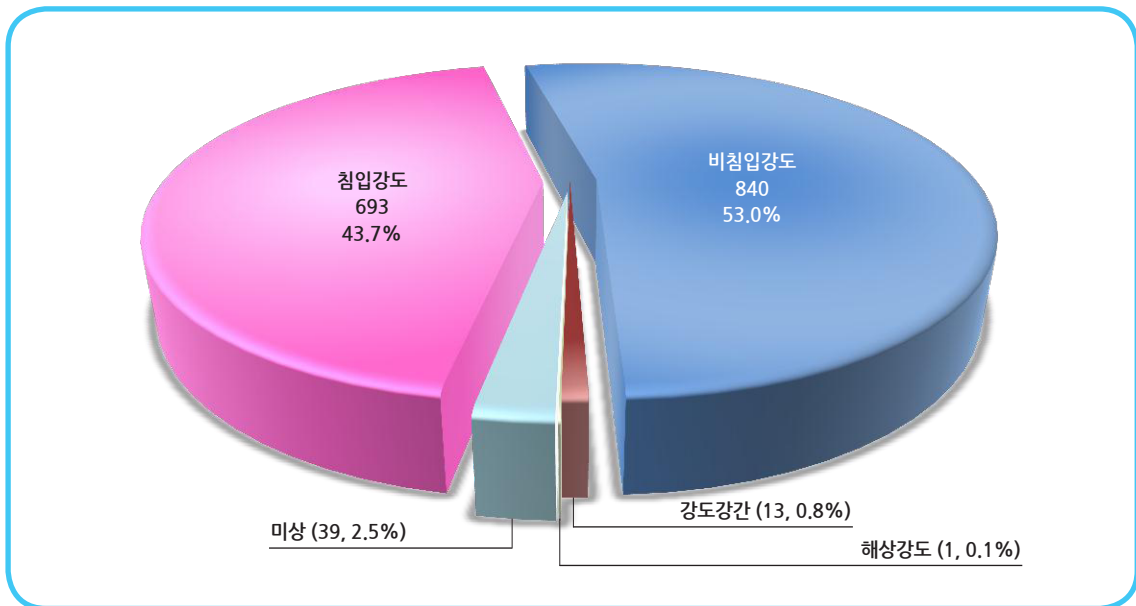
단위 : 건, %

강도범죄수법	발생건수	구성비
침입강도	693	43.7
비침입강도	840	53.0
강도강간	13	0.8
해상강도	1	0.1
미상	39	2.5
계	1,586	100.0

* 침입강도: 일반, 감금, 인질, 기타

** 비침입강도: 차내강도(운전자상대강도), 노상강도, 차량이용강도, 마취강도, 약취유인강도, 기타

<그림 - 34> 강도 범죄 수법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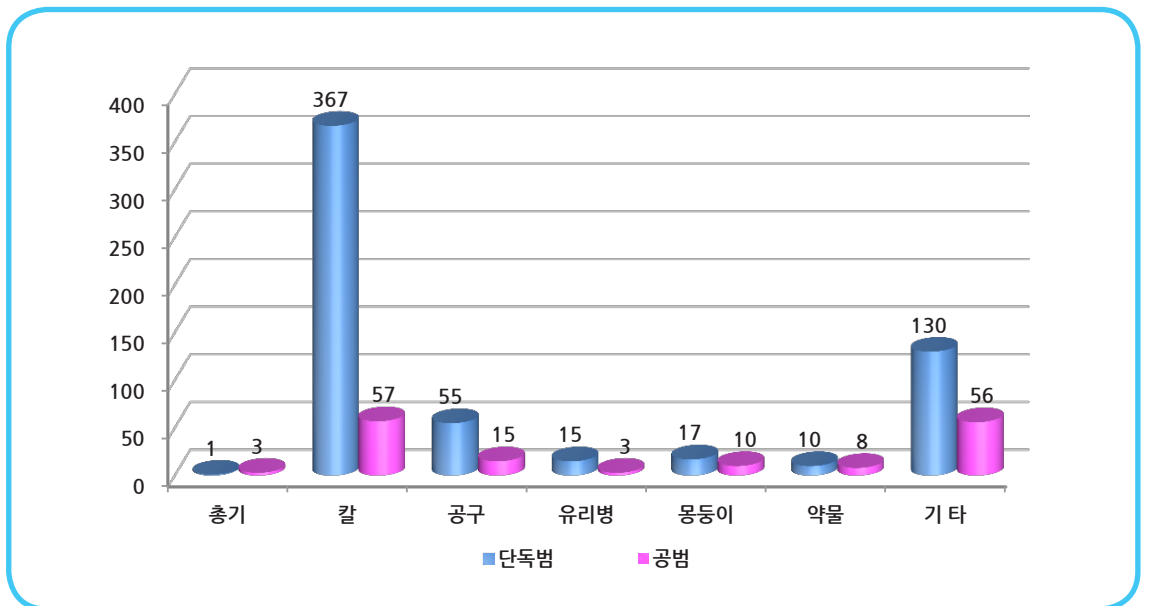
- 강도범죄의 수법을 살펴보면, 비침입강도가 53.0%, 침입강도가 43.7%, 강도강간 0.8% 등으로 비침입강도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음

〈표 - 31〉 강도범죄 공범유무별 범행도구

단위 : 건, %

범행도구	공범수	단독범		공범		기타		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총	기	1	0.1	3	0.9	0	0.0	4	0.2
	칼	367	33.2	57	16.6	10	10.2	434	28.1
공	구	55	5.0	15	4.4	2	2.0	72	4.7
유	리	15	1.4	3	0.9	1	1.0	19	1.2
몽	등	17	1.5	10	2.9	13	13.3	40	2.6
약	물	10	0.9	8	2.3	0	0.0	18	1.2
기	타	130	11.8	56	16.3	16	16.3	202	13.1
소	지	510	46.2	191	55.7	56	57.1	757	48.9
계		1,105	100.0	343	100.0	98	100.0	1,546	100.0

〈그림 - 35〉 강도범죄 공범유무별 범행도구 (소지무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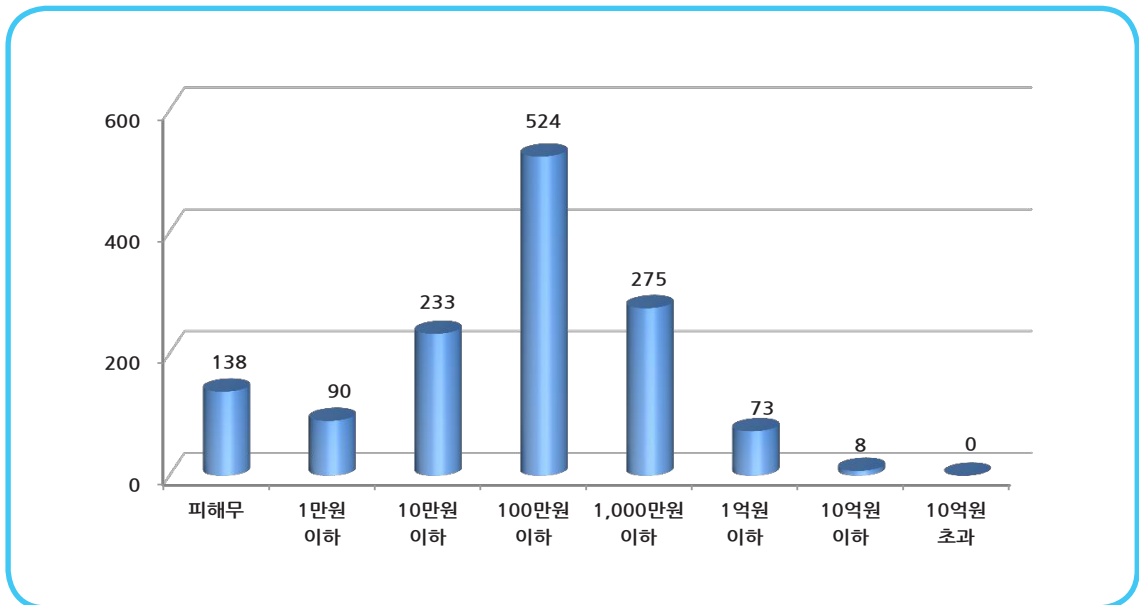
- 강도범죄에서 별다른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48.9%로 절반가량의 비율을 나타냄
- 범행도구로 칼이 사용된 비율이 28.1%로 도구가 사용된 경우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공범유무별 범행도구를 살펴보면 단독범의 경우 별다른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46.2%)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칼을 사용한 비율(33.2%)이 상대적으로 높음. 공범이 있는 경우도 별다른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55.7%)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칼을 사용한 비율(16.6%)이 가장 높음

〈표 - 32〉 강도범죄 피해금액

단위 : 건, %

피해금액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138	8.7
1만원이하		90	5.7
10만원이하		233	14.7
100만원이하		524	33.0
1,000만원이하		275	17.3
1억원 이하		73	4.6
10억원 이하		8	0.5
10억원 초과		0	0.0
미상		245	15.4
계		1,586	100.0

〈그림 - 36〉 강도범죄 피해금액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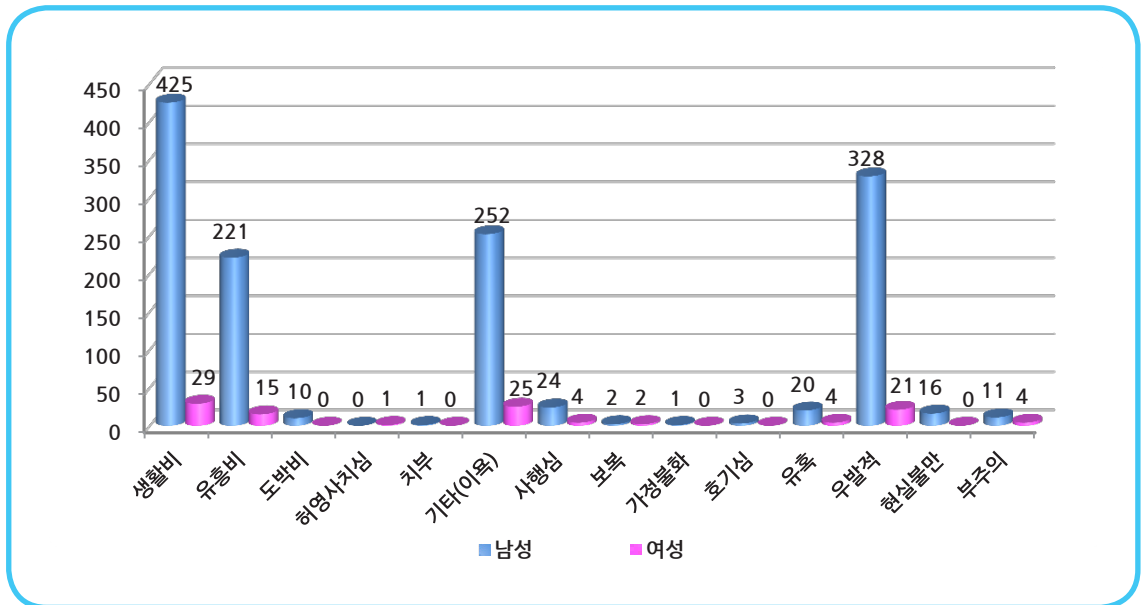
- 강도범죄로 보고되었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비율이 8.7%로 나타났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사건 중에는 1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33.0%로 가장 높음. 그 밖에 1,0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17.3%, 1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14.7% 순으로 나타남

〈표 - 33〉 강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425	22.4	29	15.8	454	21.8
유혹비	221	11.7	15	8.2	236	11.4
도박비	10	0.5	0	0.0	10	0.5
허영사치심	0	0.0	1	0.5	1	0.0
치부	1	0.1	0	0.0	1	0.0
기타(이욕)	252	13.3	25	13.6	277	13.3
사행심	24	1.3	4	2.2	28	1.3
보복	2	0.1	2	1.1	4	0.2
가정불화	1	0.1	0	0.0	1	0.0
호기심	3	0.2	0	0.0	3	0.1
유혹	20	1.1	4	2.2	24	1.2
우발적	328	17.3	21	11.4	349	16.8
현실불만	16	0.8	0	0.0	16	0.8
부주의	11	0.6	4	2.2	15	0.7
기타	437	23.1	45	24.5	482	23.2
미상	143	7.6	34	18.5	177	8.5
계	1,894	100.0	184	100.0	2,078	100.0

〈그림 - 37〉 강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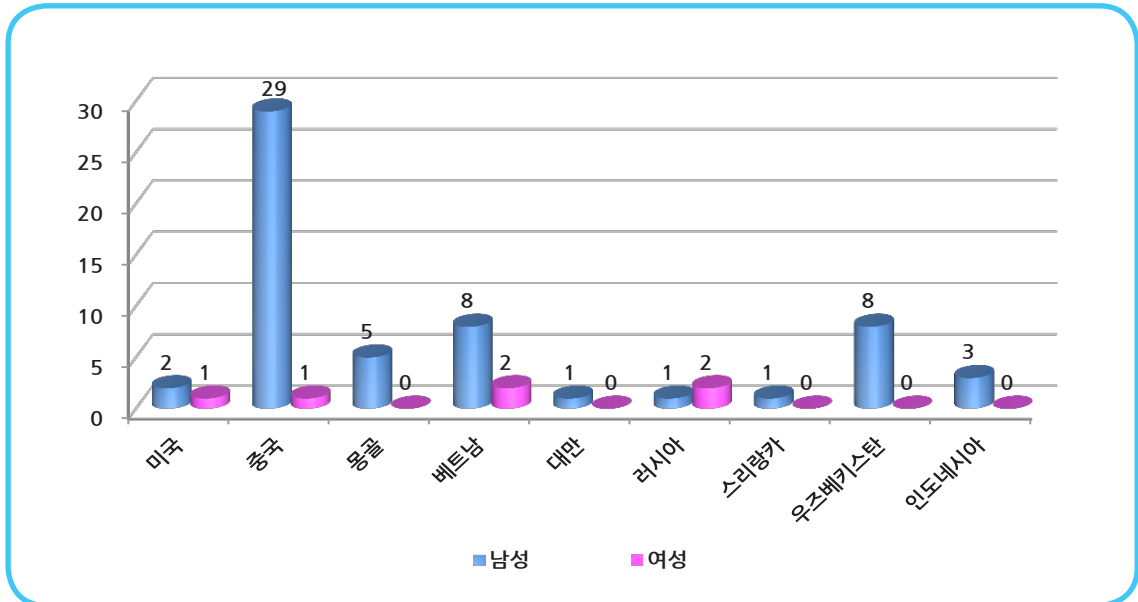
-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본 결과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21.8%로 가장 높았고, 우발적인 경우가 16.8%, 기타(이욕)인 경우가 13.3% 순으로 나타남
- 남성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생활비를 이유로 한 경우가 22.4%로 가장 높고, 우발적 17.3%, 기타(이욕)이 13.3%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도범죄자의 경우는 생활비가 범행동기인 경우가 15.8%, 다음으로 기타(이욕)이 13.6%, 우발적(17.3%)인 경우가 11.4% 순으로 나타남. 남녀 둘 다 생활비가 가장 큰 범행동기였으나, 남성의 범행동기 중 우발적인 경우가 여성(11.4%)에 비해 1.5배 더 높음

〈표 - 34〉 강도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826	96.4	178	96.7	2,004	96.4
미국	2	0.1	1	0.5	3	0.1
중국	29	1.5	1	0.5	30	1.4
일본	0	0.0	0	0.0	0	0.0
몽골	5	0.3	0	0.0	5	0.2
베트남	8	0.4	2	1.1	10	0.5
태국	0	0.0	0	0.0	0	0.0
대만	1	0.1	0	0.0	1	0.0
러시아	1	0.1	2	1.1	3	0.1
방글라데시	0	0.0	0	0.0	0	0.0
스리랑카	1	0.1	0	0.0	1	0.0
우즈베키스탄	8	0.4	0	0.0	8	0.4
인도네시아	3	0.2	0	0.0	3	0.1
캐나다	0	0.0	0	0.0	0	0.0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필리핀	0	0.0	0	0.0	0	0.0
파키스탄	0	0.0	0	0.0	0	0.0
기타	10	0.5	0	0.0	10	0.5
총계	1,894	100.0	184	100.0	2,078	100.0

〈그림 - 38〉 강도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제외, 단위 : 명)



- 강도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이 2,004명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비율이 74명으로 3.6%로 나타남. 한국 국적 다음으로 중국이 30명(1.4%)으로 가장 높고, 베트남 10명(0.5%), 우즈베키스탄 8명(0.4%)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강도범죄자의 국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중국 29명(1.5%),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8명(0.4%), 그리고 몽골 5명(0.3%)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도범죄자 국적을 보면, 베트남과 러시아가 각 2명(1.1%), 미국과 중국이 각 1명(0.5%)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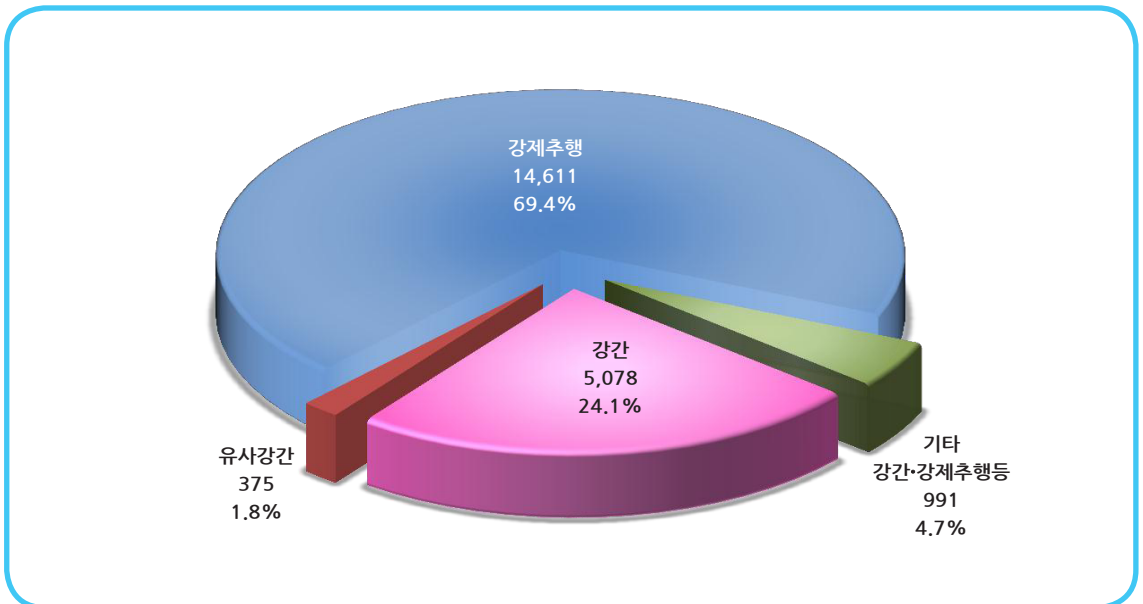
다. 강간·강제추행

〈표 - 35〉 강간·강제추행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죄종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강간	5,078	24.1
	유사강간	375	1.8
	강제추행	14,611	69.4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991	4.7
	계	21,055	100.0

〈그림 - 39〉 강간·강제추행범죄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강간·강제추행범죄는 유형별로 강간(유사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강간(유사강간 포함)과 강제추행의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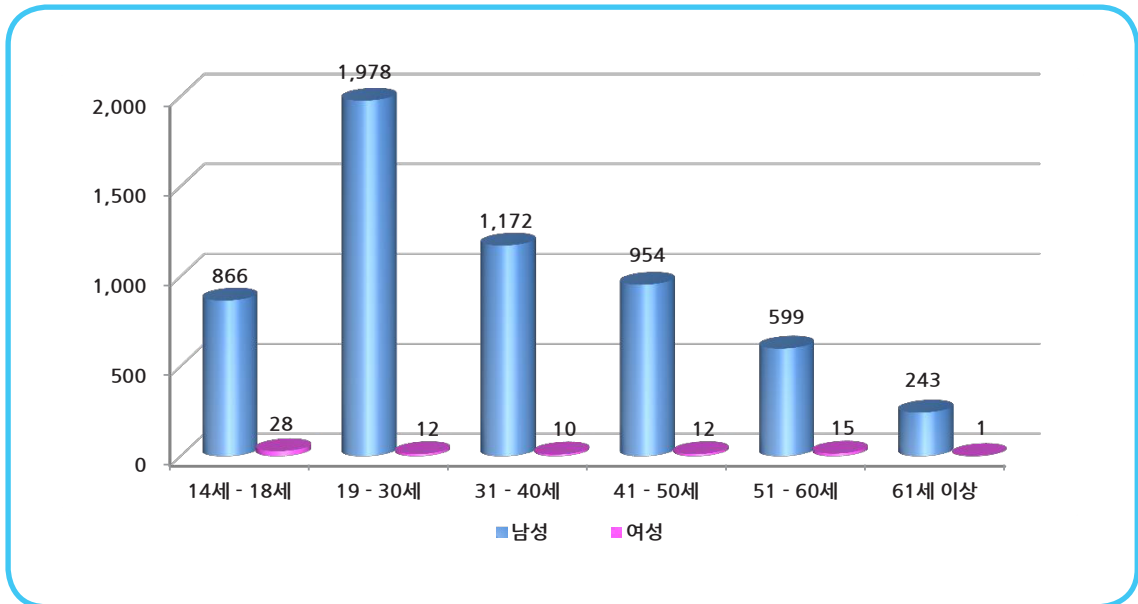
1) 강간(유사강간포함)

<표 - 36> 강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구분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0	0.0	0	0.0	0	0.0
14세 - 18세	866	14.9	28	35.9	894	15.1
19세 - 30세	1,978	33.9	12	15.4	1,990	33.7
31세 - 40세	1,172	20.1	10	12.8	1,182	20.0
41세 - 50세	954	16.4	12	15.4	966	16.4
51세 - 60세	599	10.3	15	19.2	614	10.4
61세 이상	243	4.2	1	1.3	244	4.1
미상	16	0.3	0	0.0	16	0.3
계	5,828	100.0	78	100.0	5,906	100.0

<그림 - 40> 강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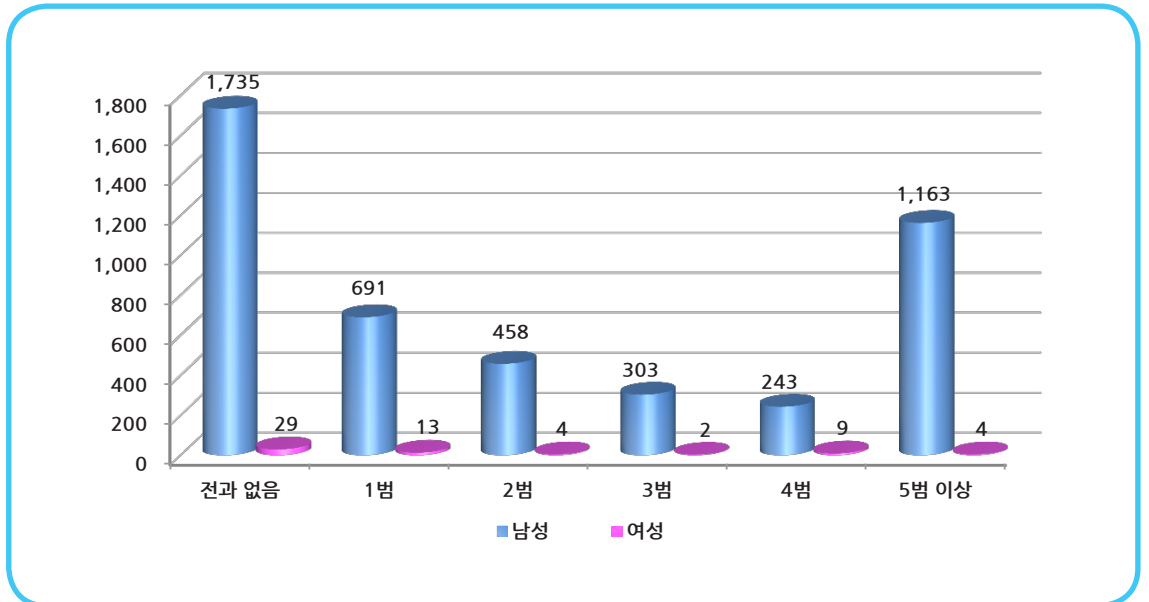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는 남성이 98.7% 여성의 비율은 1.3%를 차지함. 남성이 여성의 75.9배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19세-30세)범죄자의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0.0%, 40대 16.4%, 10대 중·후반(14세-18세) 15.1%, 50대 10.4% 순으로 나타남

〈표 - 37〉 강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성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735	29.8	29	37.2	1,764	29.9
1범		691	11.9	13	16.7	704	11.9
2범		458	7.9	4	5.1	462	7.8
3범		303	5.2	2	2.6	305	5.2
4범		243	4.2	9	11.5	252	4.3
5범 이상		1,163	20.0	4	5.1	1,167	19.8
미상		1,235	21.2	17	21.8	1,252	21.2
계		5,828	100.0	78	100.0	5,906	100.0

〈그림 - 41〉 강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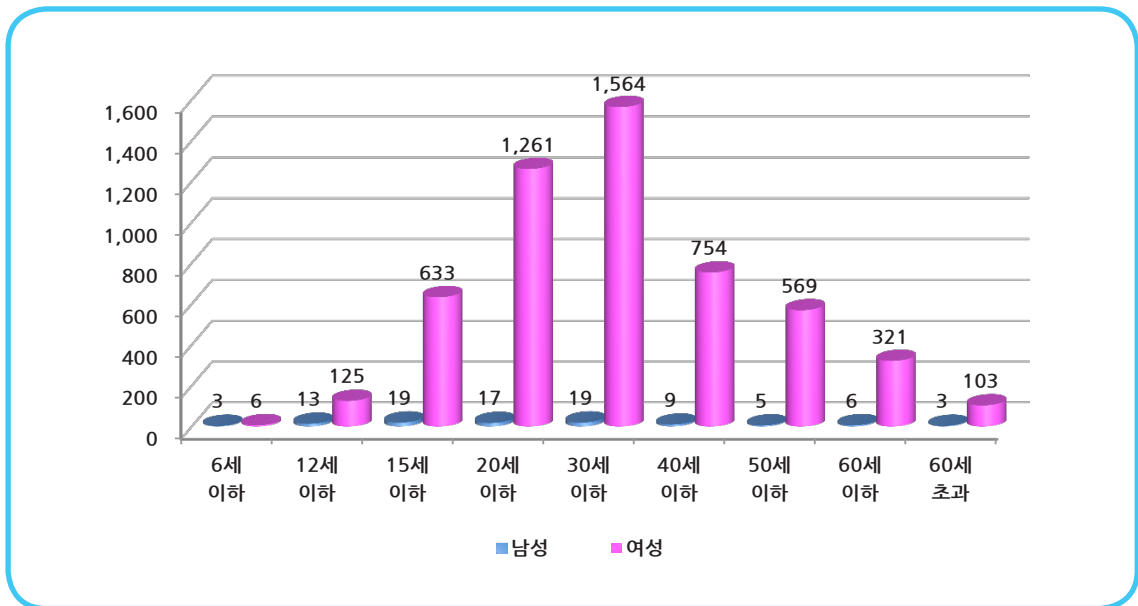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의 성별 전과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과 없음이 29.8%인 반면, 1범 이상의 전과자 비율이 49.2%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전과자의 비율이 절반 수준임
- 여성은 전과 없음이 37.2%로 남성의 전과 없음(29.8%)의 비율보다 1.2배 높고 여성 전과자 비율은 41.0%로 나타남
- 전과 5범 이상인 강간범죄자는 남성이 20.0%로 여성 5.1%보다 3.9배 높게 나타남

〈표 - 38〉 강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구분 연령	남성		여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3	3.2	6	0.1	9	0.2
12세 이하	13	13.8	125	2.3	138	2.5
15세 이하	19	20.2	633	11.8	652	12.0
20세 이하	17	18.1	1,261	23.6	1,278	23.5
30세 이하	19	20.2	1,564	29.3	1,583	29.1
40세 이하	9	9.6	754	14.1	763	14.0
50세 이하	5	5.3	569	10.6	574	10.6
60세 이하	6	6.4	321	6.0	327	6.0
60세 초과	3	3.2	103	1.9	106	1.9
미상	0	0.0	7	0.1	7	0.1
계	94	100.0	5,343	100.0	5,437	100.0

〈그림 - 42〉 강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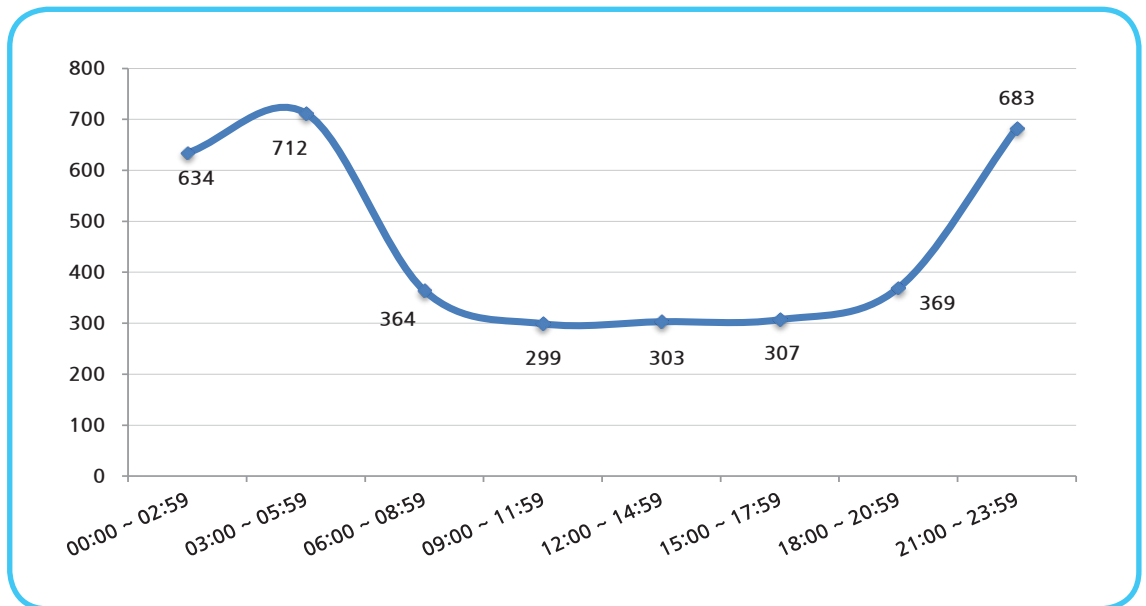
- 강간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98.3%)이며, 30세 이하가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세 이하가 23.5%로 나타남. 그러나 20세 이하의 범주는 5세 간격(16세-20세)인데 반해, 30세 이하는 10세 간격(21세-30세)이기 때문에 범주의 간격을 고려하면, 20세 이하의 피해자가 37.8%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음
- 40세 이하는 14.0%, 15세 이하는 12.0%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범주의 간격을 고려하면 12세 초과 15세 이하의 피해자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 39〉 강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634	11.6
03 : 00 ~ 05 : 59		712	13.1
06 : 00 ~ 08 : 59		364	6.7
09 : 00 ~ 11 : 59		299	5.5
12 : 00 ~ 14 : 59		303	5.6
15 : 00 ~ 17 : 59		307	5.6
18 : 00 ~ 20 : 59		369	6.8
21 : 00 ~ 23 : 59		683	12.5
미상		1,782	32.7
계		5,453	100.0

〈그림 - 43〉 강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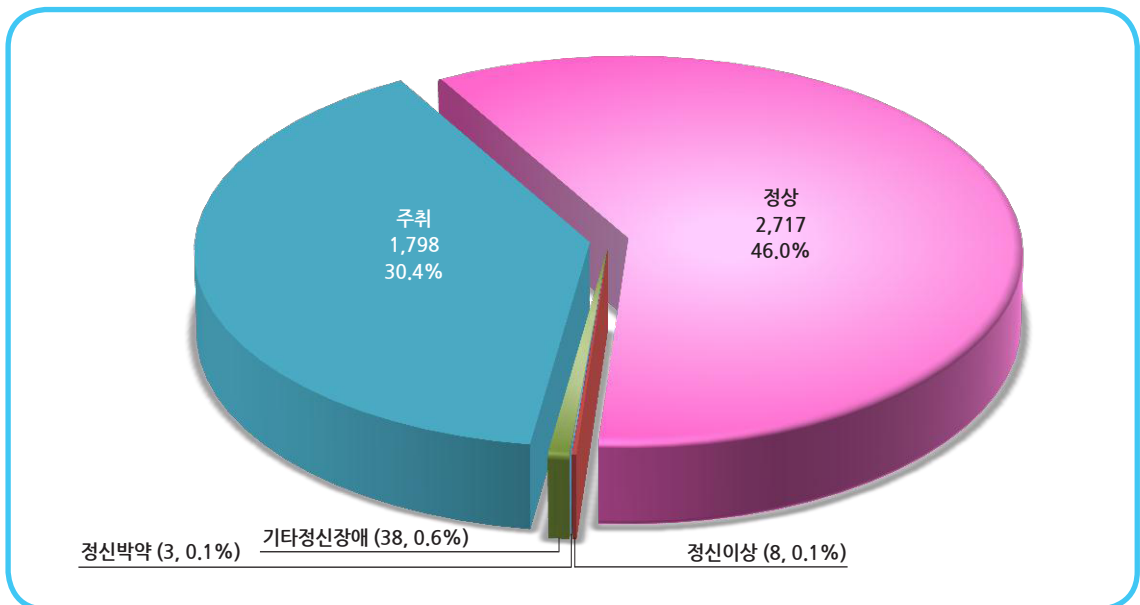
- 강간범죄는 새벽 시간대인 03:00~05:59에 13.1%로 가장 높게 발생하였으며, 늦은 밤 시간대인 21:00~23:59에 12.5%, 그리고 심야 시간대인 00 : 00~02 : 59에 11.6% 등 낮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음

<표 - 40> 강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명, %

정신상태	구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2,717	46.0
정신이상		8	0.1
정신박약		3	0.1
기타정신장애		38	0.6
주취		1,798	30.4
미상		1,342	22.7
계		5,906	100.0

<그림 - 44> 강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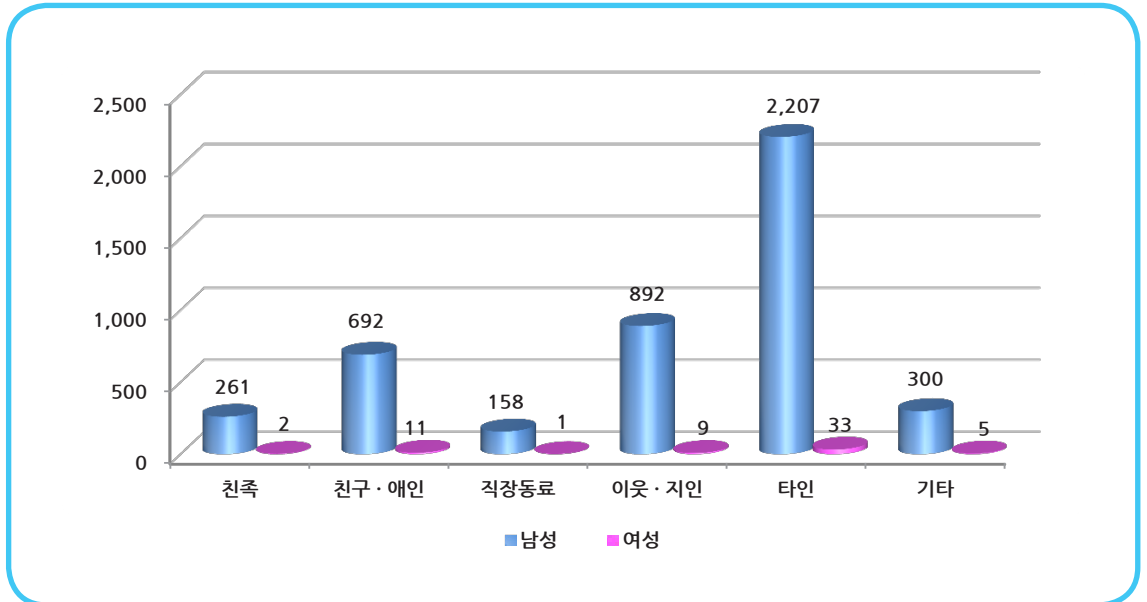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가 정신이상인 경우는 0.1%, 정신박약이 0.1%로 극히 적은 반면,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46.0%로 전체 강간범죄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남
- 강간범죄에서 범죄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30.4%로 나타남

〈표 - 41〉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성 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261	4.4	2	2.6	263	4.5
친구·애인		692	11.9	11	14.1	703	11.9
직장동료		158	2.7	1	1.3	159	2.7
이웃·지인		892	15.3	9	11.5	901	15.2
타인		2,207	37.9	33	42.3	2,240	37.9
기타		300	5.1	5	6.4	305	5.1
미상		1,318	22.6	17	21.8	1,335	22.6
계		5,828	100.0	78	100.0	5,906	100.0

〈그림 - 45〉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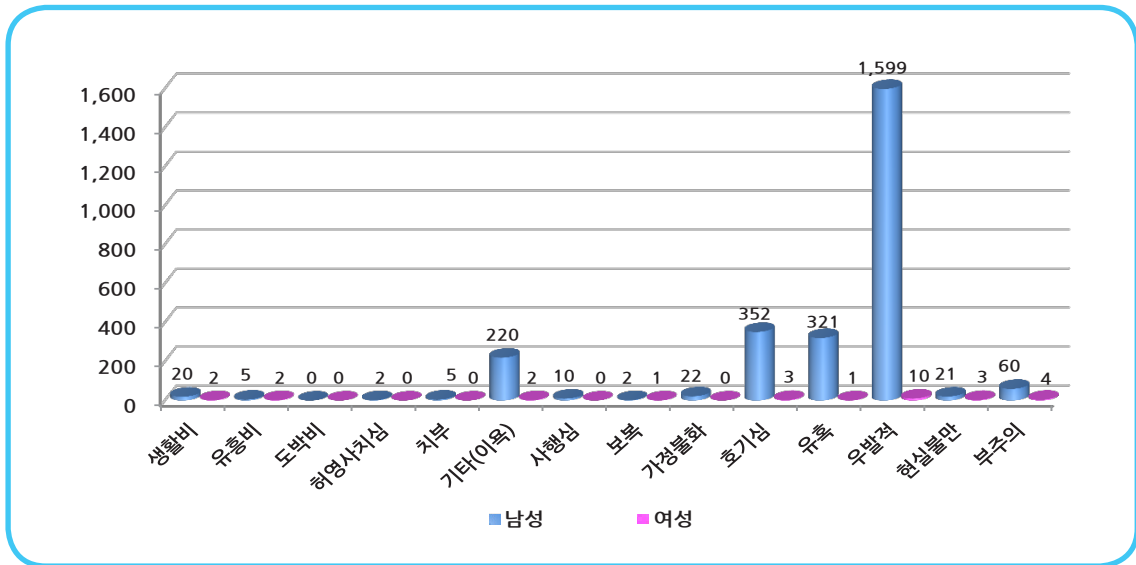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웃이나 지인 15.2%, 친구나 애인 11.9%로 나타남
- 강간범죄범 죄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남성 강간범죄자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37.9%)가 가장 많고, 이웃이나 지인(15.3%) 그리고 친구나 애인(11.9%)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간범죄자 역시 타인을 대상으로(42.3%)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나 애인(14.1%), 이웃이나 지인(11.5%) 순으로 나타남

〈표 - 42〉 강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20	0.3	2	2.6	22	0.4
유혹비	5	0.1	2	2.6	7	0.1
도박비	0	0.0	0	0.0	0	0.0
허영사치심	2	0.0	0	0.0	2	0.0
치부	5	0.1	0	0.0	5	0.1
기타(이욕)	220	3.8	2	2.6	222	3.8
사행심	10	0.2	0	0.0	10	0.2
보복	2	0.0	1	1.3	3	0.1
가정불화	22	0.4	0	0.0	22	0.4
호기심	352	6.0	3	3.8	355	6.0
유혹	321	5.5	1	1.3	322	5.5
우발적	1,599	27.4	10	12.8	1,609	27.2
현실불만	21	0.4	3	3.8	24	0.4
부주의	60	1.0	4	5.1	64	1.1
기타	1,858	31.9	33	42.3	1,891	32.0
미상	1,331	22.8	17	21.8	1,348	22.8
계	5,828	100.0	78	100.0	5,906	100.0

〈그림 - 46〉 강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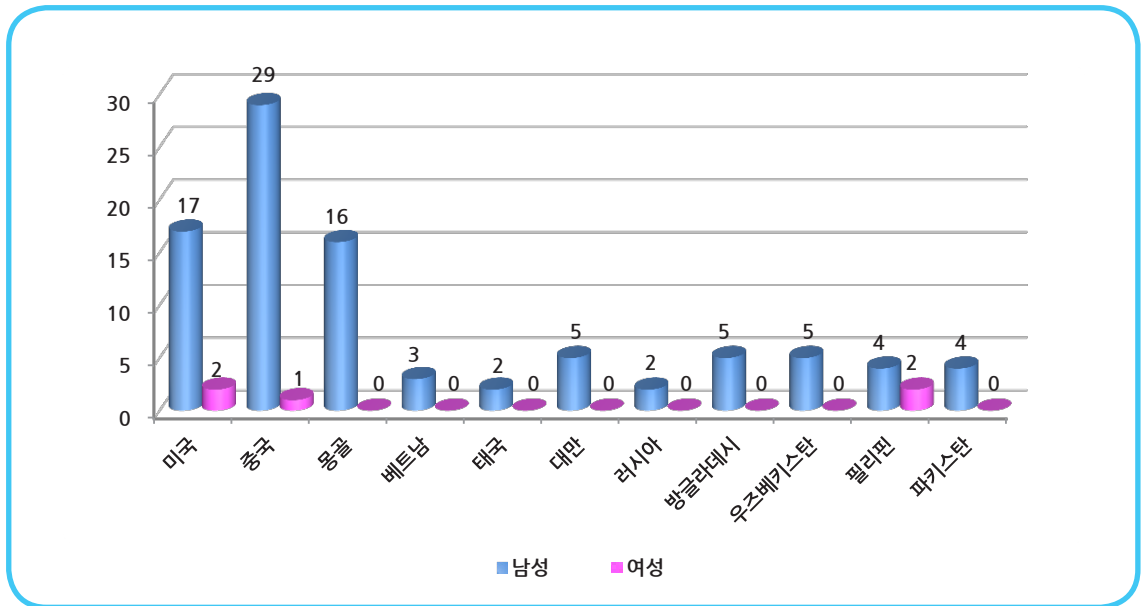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의 범행동기별로 살펴보면, 우발적(27.2%)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6.0%), 유혹(5.5%) 순으로 나타남
- 강간범죄자 범행동기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 강간범죄자는 우발적인 경우가 27.4%, 호기심으로 범행을 한 경우가 6.0%, 유혹에 의한 경우가 5.5%로 나타남. 반면, 여성 강간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12.8%로 가장 높았고, 부주의가 5.1%, 현실불만과 호기심이 각각 3.8%로 남성의 범행동기와는 차이를 보임. 우발적인 경우는 남성 강간범죄자(27.4%)가 여성 강간범죄자(12.8%)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표 - 43〉 강간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성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5,724	98.2	73	93.6	5,797	98.2		
미국	17	0.3	2	2.6	19	0.3		
중국	29	0.5	1	1.3	30	0.5		
일본	0	0.0	0	0.0	0	0.0		
몽골	16	0.3	0	0.0	16	0.3		
베트남	3	0.1	0	0.0	3	0.1		
태국	2	0.0	0	0.0	2	0.0		
대만	5	0.1	0	0.0	5	0.1		
러시아	2	0.0	0	0.0	2	0.0		
방글라데시	5	0.1	0	0.0	5	0.1		
스리랑카	0	0.0	0	0.0	0	0.0		
우즈베키스탄	5	0.1	0	0.0	5	0.1		
인도네시아	0	0.0	0	0.0	0	0.0		
캐나다	0	0.0	0	0.0	0	0.0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필리핀	4	0.1	2	2.6	6	0.1		
파키스탄	4	0.1	0	0.0	4	0.1		
기타	12	0.2	0	0.0	12	0.2		
총계	5,828	100.0	78	100.0	5,906	100.0		

〈그림 - 47〉 강간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제외, 단위 : 명)



- 강간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이 5,797명(98.2%) 한국 외 국적이 109명(1.8%)로 나타남.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인 강간범죄자가 30명(0.5%)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9명(0.3%), 몽골 16명(0.3%)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강간범죄자 국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중국이 29명(0.5%)으로 가장 많고, 미국 17명(0.3%), 몽골 16명(0.3%)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총 5명 중 미국과 필리핀이 각 2명(2.6%) 그리고 중국 1명(0.3%)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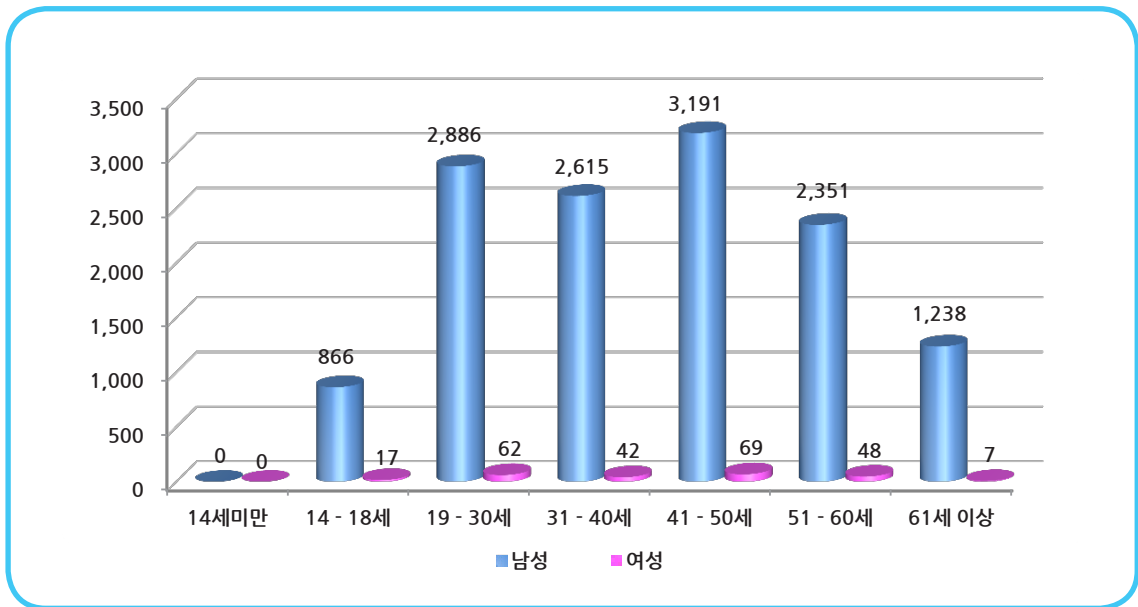
2) 강제추행

〈표 - 44〉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구분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0	0.0	0	0.0	0	0.0
14세 - 18세	866	6.6	17	6.9	883	6.6
19세 - 30세	2,886	21.9	62	25.3	2,948	22.0
31세 - 40세	2,615	19.9	42	17.1	2,657	19.8
41세 - 50세	3,191	24.3	69	28.2	3,260	24.3
51세 - 60세	2,351	17.9	48	19.6	2,399	17.9
61세 이상	1,238	9.4	7	2.9	1,245	9.3
미상	8	0.1	0	0.0	8	0.1
계	13,155	100.0	245	100.0	13,400	100.0

〈그림 - 48〉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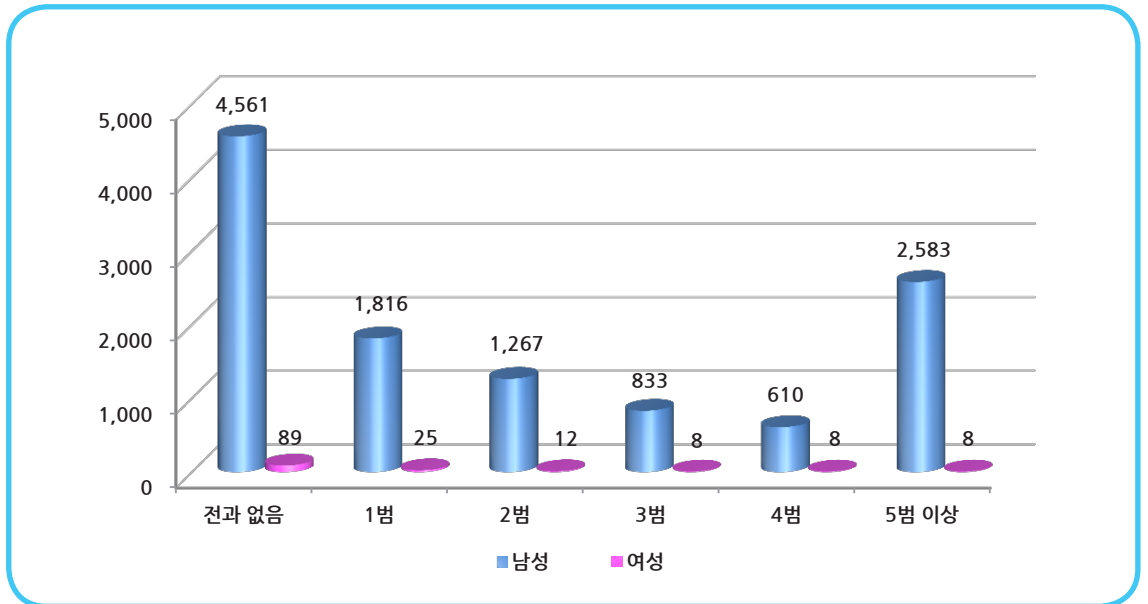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98.2%, 여성이 1.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4.6배 높게 나타남
- 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 범죄자의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22.0%), 30대(1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 45>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구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4,561	34.7	89	36.3	4,650	34.7
1범		1,816	13.8	25	10.2	1,841	13.7
2범		1,267	9.6	12	4.9	1,279	9.5
3범		833	6.3	8	3.3	841	6.3
4범		610	4.6	8	3.3	618	4.6
5범 이상		2,583	19.6	8	3.3	2,591	19.3
미상		1,485	11.3	95	38.8	1,580	11.8
계		13,155	100.0	245	100.0	13,400	100.0

<그림 - 49>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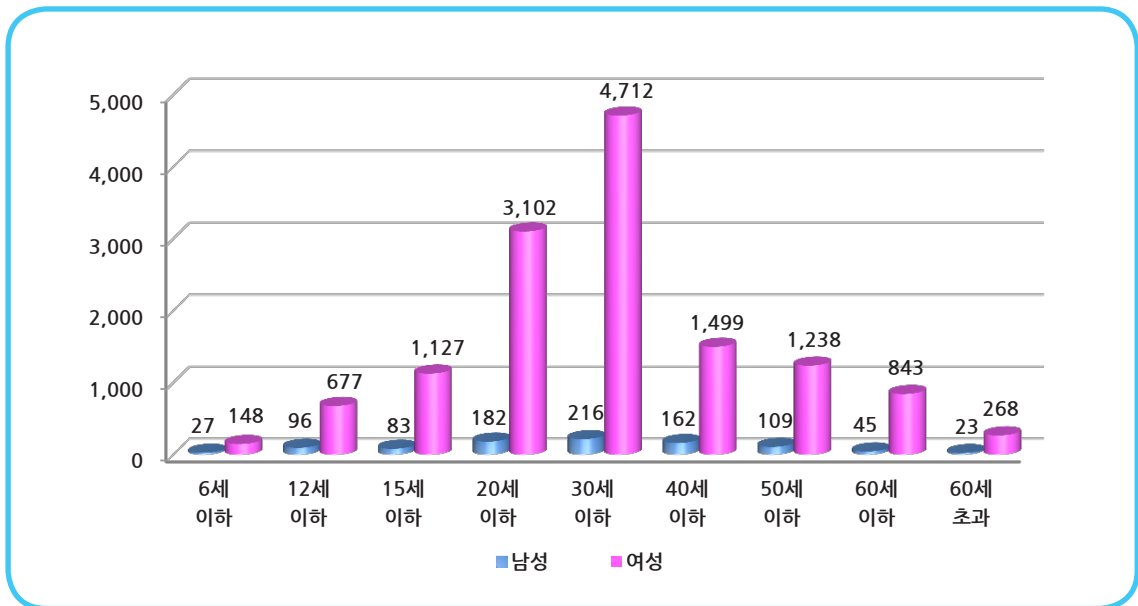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의 성별 전과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과 없음이 34.7%, 5범 이상이 19.6%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전과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전과 없음이 36.3%로 전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 46〉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구분 연령	남성		여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27	2.9	148	1.1	175	1.2
12세 이하	96	10.2	677	5.0	773	5.3
15세 이하	83	8.8	1,127	8.3	1,210	8.3
20세 이하	182	19.3	3,102	22.8	3,284	22.5
30세 이하	216	22.9	4,712	34.6	4,928	33.8
40세 이하	162	17.1	1,499	11.0	1,661	11.4
50세 이하	109	11.5	1,238	9.1	1,347	9.2
60세 이하	45	4.8	843	6.2	888	6.1
60세 초과	23	2.4	268	2.0	291	2.0
미상	2	0.2	17	0.1	19	0.1
계	945	100.0	13,631	100.0	14,576	100.0

〈그림 - 50〉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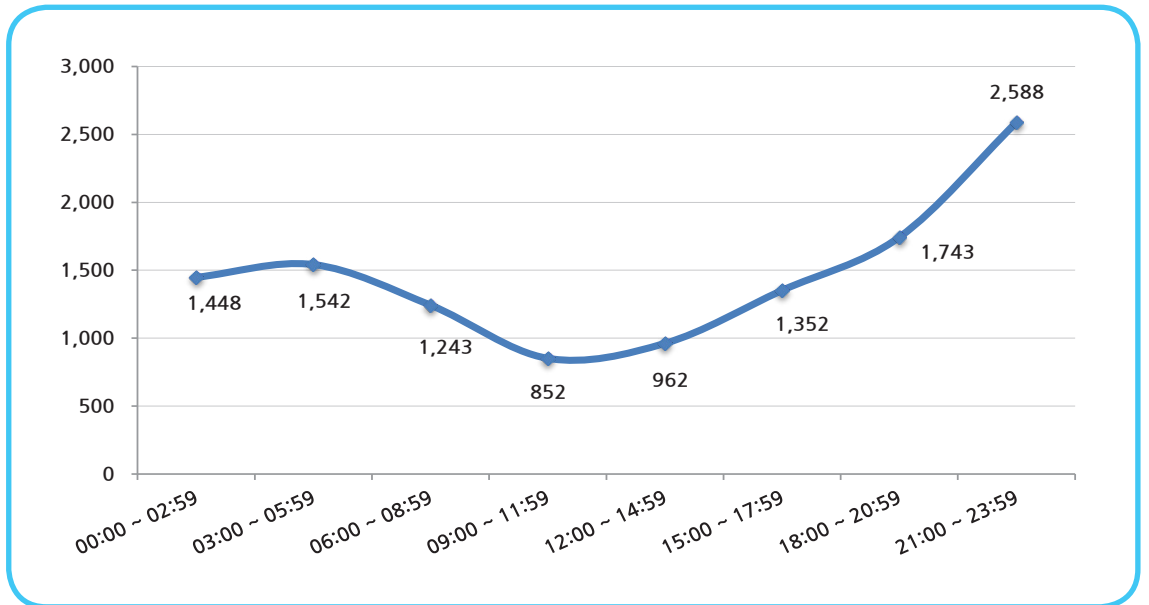
- 강제추행 피해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93.5%로 남성의 6.5% 보다 14.4배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강제추행 피해자는 20세 초과 30세 이하가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16세 이상 20세 이하가 22.5%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범주의 간격을 고려하면 20세 이하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30세 초과 40세 이하 11.4%, 12세 초과 15세 이하 8.3%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범주의 간격을 고려하면 피해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표 - 47> 강제추행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1,448	9.9
03 : 00 ~ 05 : 59		1,542	10.6
06 : 00 ~ 08 : 59		1,243	8.5
09 : 00 ~ 11 : 59		852	5.8
12 : 00 ~ 14 : 59		962	6.6
15 : 00 ~ 17 : 59		1,352	9.3
18 : 00 ~ 20 : 59		1,743	11.9
21 : 00 ~ 23 : 59		2,588	17.7
미상		2,881	19.7
계		14,611	100.0

<그림 - 51> 강제추행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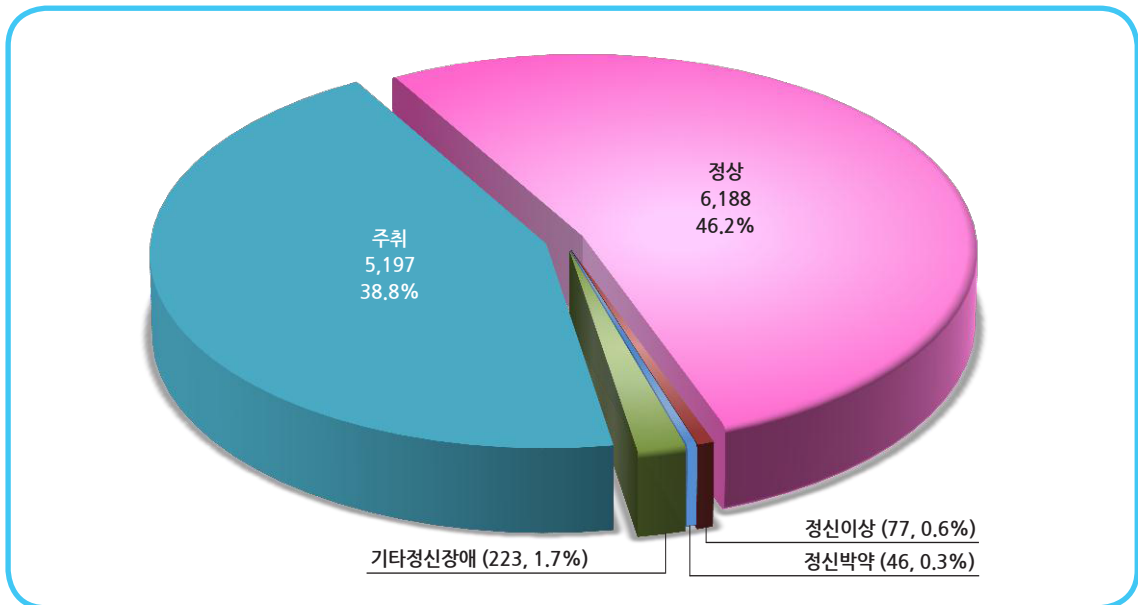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는 늦은 밤 시간인 21 : 00~23 : 59 시간대(17.7%)에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고, 저녁 시간인 18 : 00~20:59 시간대에 11.9%, 새벽 시간인 03 : 00~05 : 59 시간대에 10.6% 순으로 나타남

<표 - 48> 강제추행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명, %

정신상태	구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6,188	46.2
정신이상		77	0.6
정신박약		46	0.3
기타정신장애		223	1.7
주취		5,197	38.8
미상		1,669	12.5
계		13,400	100.0

<그림 - 52> 강제추행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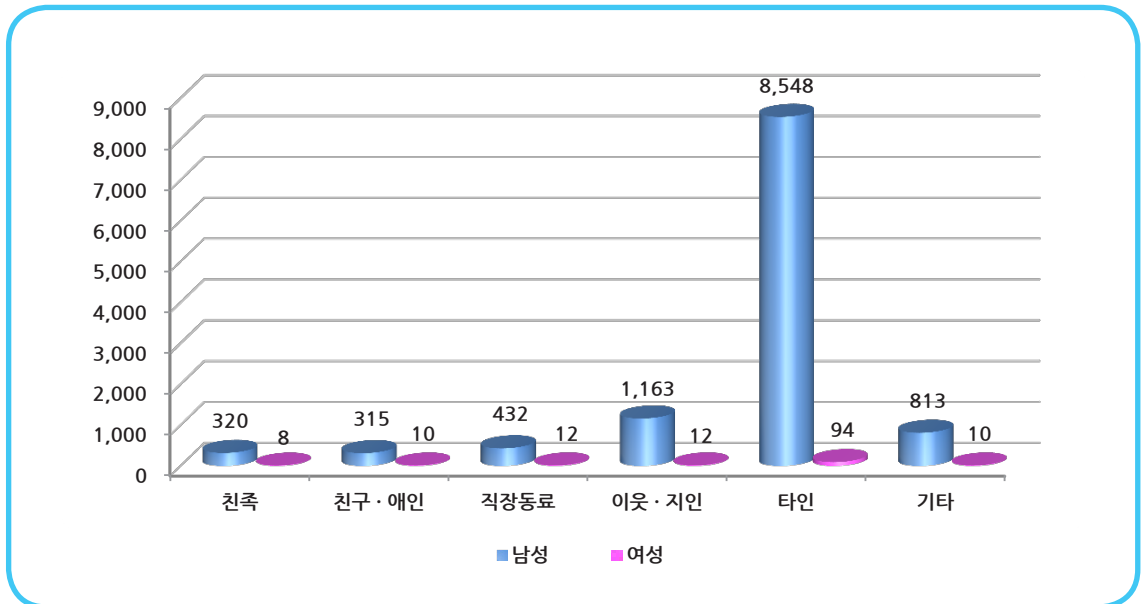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가 정신이상(0.6%)이나 정신박약(0.3%)상태였던 경우는 0.9%에 불과하였고, 강제추행범죄자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46.2%로 높게 나타남
- 강제추행범죄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38.8%로 나타남

〈표 - 49〉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320	2.5	8	3.2	328	2.5
친구·애인	315	2.4	10	4.1	325	2.4
직장동료	432	3.3	12	4.9	444	3.3
이웃·지인	1,163	8.8	12	4.9	1,175	8.8
타인	8,548	65.0	94	38.4	8,642	64.5
기타	813	6.1	10	4.1	823	6.1
미상	1,564	11.9	99	40.4	1,663	12.4
계	13,155	100.0	245	100.0	13,400	100.0

〈그림 - 53〉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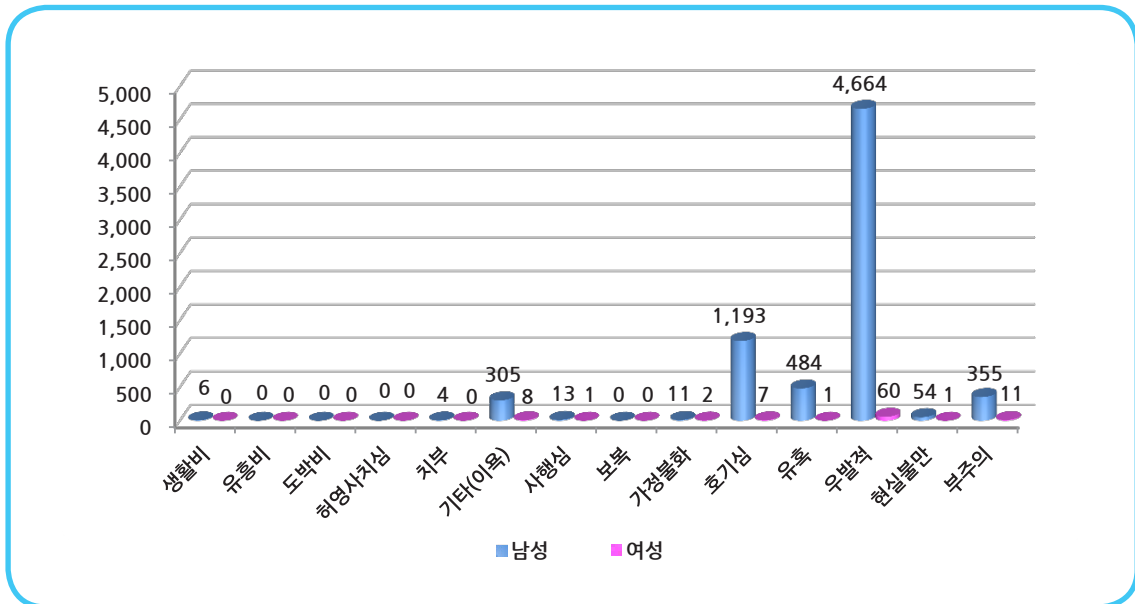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이웃이나 지인이 8.8%, 직장동료인 경우가 3.3% 순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타인인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지인이 8.8%, 직장동료 3.3% 순이었음. 여성 강제추행범죄자도 타인인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 또는 이웃이나 지인이 4.9% 으로 나타남

〈표 - 50〉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6	0.0	0	0.0	6	0.0
유혹비	0	0.0	0	0.0	0	0.0
도박비	0	0.0	0	0.0	0	0.0
허영사치심	0	0.0	0	0.0	0	0.0
치부	4	0.0	0	0.0	4	0.0
기타(이욕)	305	2.3	8	3.3	313	2.3
사행심	13	0.1	1	0.4	14	0.1
보복	0	0.0	0	0.0	0	0.0
가정불화	11	0.1	2	0.8	13	0.1
호기심	1,193	9.1	7	2.9	1,200	9.0
유혹	484	3.7	1	0.4	485	3.6
우발적	4,664	35.5	60	24.5	4,724	35.3
현실불만	54	0.4	1	0.4	55	0.4
부주의	355	2.7	11	4.5	366	2.7
기타	4,483	34.1	54	22.0	4,537	33.9
미상	1,583	12.0	100	40.8	1,683	12.6
계	13,155	100.0	245	100.0	13,400	100.0

〈그림 - 54〉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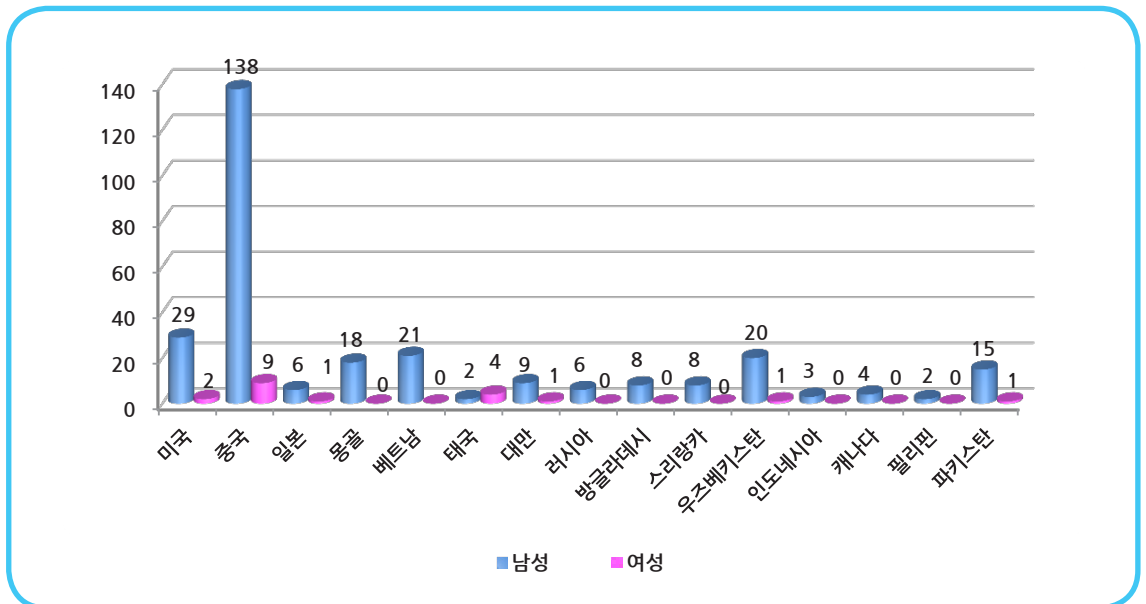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본 결과, 우발적인 경우가 3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 호기심 9.0%, 유혹에 의한 경우가 3.6% 순으로 나타남
-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3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 9.1%, 유혹 3.7%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24.5%, 부주의 4.5%, 기타(이욕) 3.3% 순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우발적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 외의 범행 동기 순서에서는 차이를 보임

〈표 - 51〉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성 별 국 적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2,802	97.3	226	92.2	13,028	97.2
미국	29	0.2	2	0.8	31	0.2
중국	138	1.0	9	3.7	147	1.1
일본	6	0.0	1	0.4	7	0.1
몽골	18	0.1	0	0.0	18	0.1
베트남	21	0.2	0	0.0	21	0.2
태국	2	0.0	4	1.6	6	0.0
대만	9	0.1	1	0.4	10	0.1
러시아	6	0.0	0	0.0	6	0.0
방글라데시	8	0.1	0	0.0	8	0.1
스리랑카	8	0.1	0	0.0	8	0.1
우즈베키스탄	20	0.2	1	0.4	21	0.2
인도네시아	3	0.0	0	0.0	3	0.0
캐나다	4	0.0	0	0.0	4	0.0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필리핀	2	0.0	0	0.0	2	0.0
파키스탄	15	0.1	1	0.4	16	0.1
기타	64	0.5	0	0.0	64	0.5
계	13,155	100.0	245	100.0	13,400	100.0

〈그림 - 55〉 강제추행범죄자 국적 (한국 제외, 단위 : 명)



- 강제추행범죄자의 국적은 한국 13,028명(97.2%)임. 다음으로 중국이 147명(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1명(0.2%),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각각 21명(0.2%)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강제추행범죄자의 국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중국이 138명(1.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9명(0.2%),몽골 18명(0.1%)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중국 9명(3.7%), 태국 4명(1.6%), 미국 2명(0.8%)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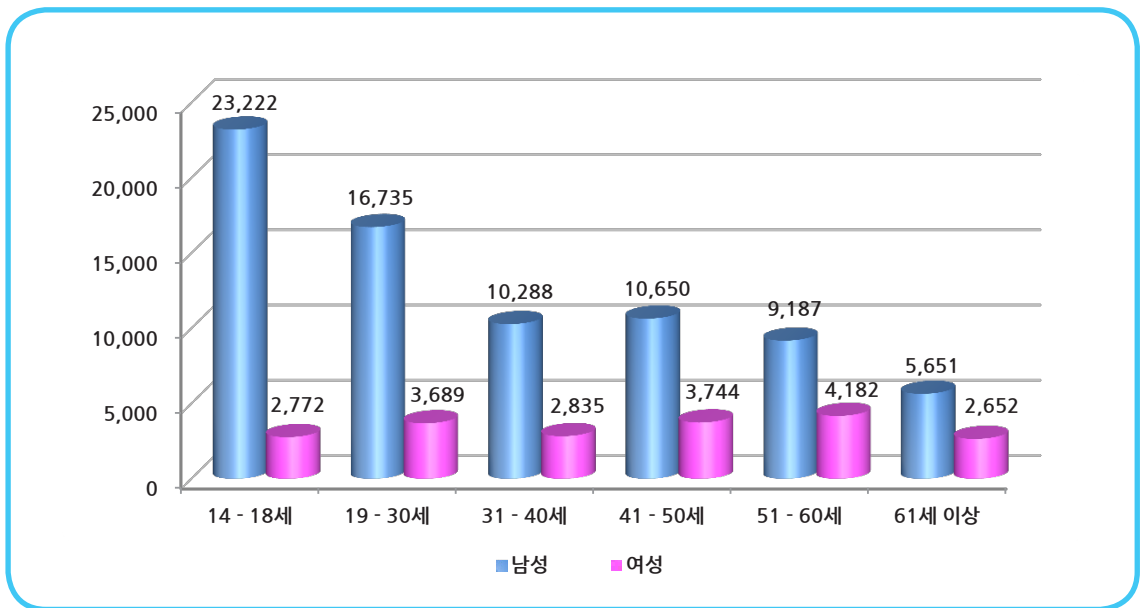
라. 절도

〈표 - 52〉 절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4	0.0	1	0.0	5	0.0
14세 - 18세	23,222	30.7	2,772	13.9	25,994	27.2
19세 - 30세	16,735	22.1	3,689	18.5	20,424	21.4
31세 - 40세	10,288	13.6	2,835	14.3	13,123	13.7
41세 - 50세	10,650	14.1	3,744	18.8	14,394	15.0
51세 - 60세	9,187	12.1	4,182	21.0	13,369	14.0
61세 이상	5,651	7.5	2,652	13.3	8,303	8.7
미상	16	0.0	17	0.1	33	0.0
계	75,753	100.0	19,892	100.0	95,645	100.0

〈그림 - 56〉 절도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14세 미만 ·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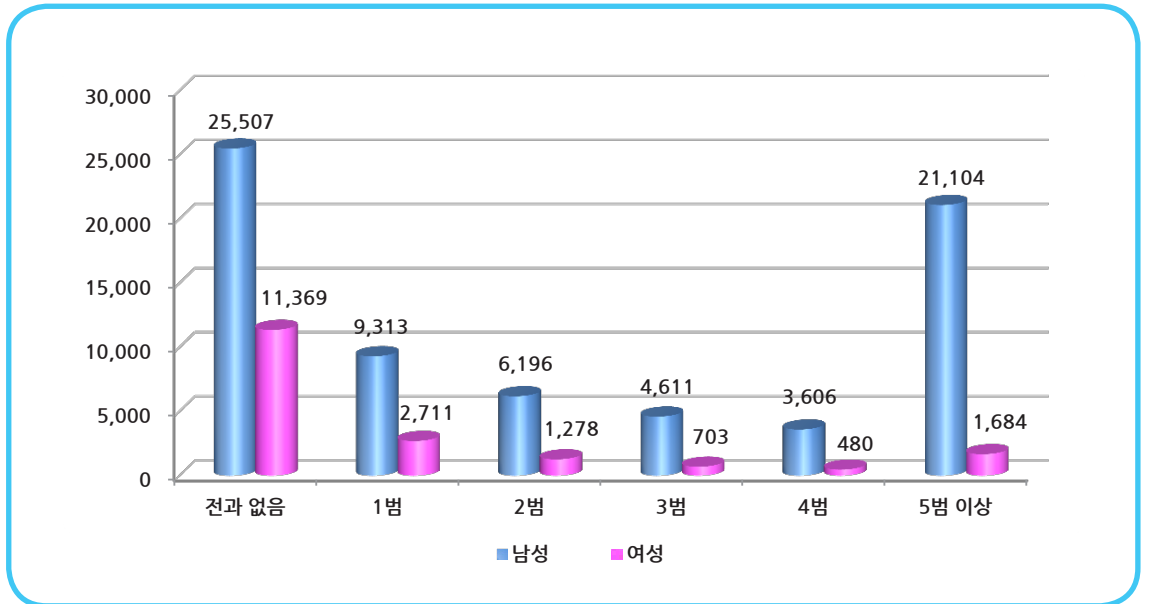
- 절도범죄자의 성비는 남성이 79.2%로 여성(20.8%)보다 3.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10대 중 · 후반(14세-18세)이 27.2%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19세-30세) 21.4%, 40대 15.0% 순으로 나타남
- 절도범죄자 중 남성은 10대 중 · 후반(14세-18세) 비율이 30.7%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50대 비율이 2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53〉 절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성 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25,507	33.7	11,369	57.2	36,876	38.6
1범		9,313	12.3	2,711	13.6	12,024	12.6
2범		6,196	8.2	1,278	6.4	7,474	7.8
3범		4,611	6.1	703	3.5	5,314	5.6
4범		3,606	4.8	480	2.4	4,086	4.3
5범 이상		21,104	27.9	1,684	8.5	22,788	23.8
미상		5,416	7.1	1,667	8.4	7,083	7.4
계		75,753	100.0	19,892	100.0	95,645	100.0

〈그림 - 57〉 절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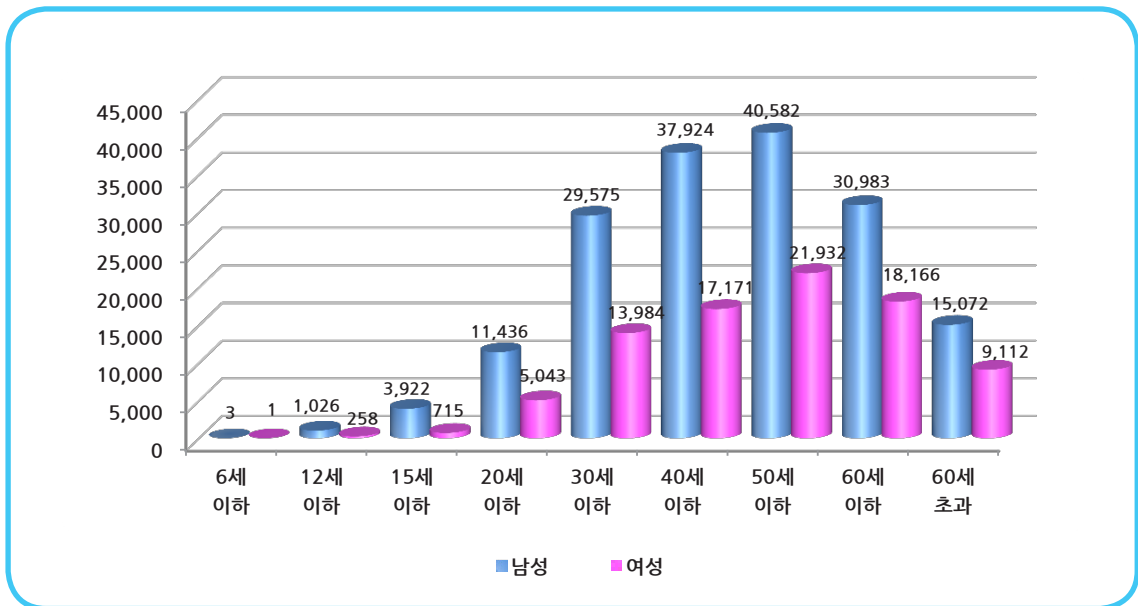
- 절도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1범 이상의 전과경력이 있는 비율(59.3%)이 전과 없음(33.7%)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절반이 넘는 57.2%의 범죄자가 전과 없으므로 나타남. 특히, 남성의 경우 전과 5범 이상 범죄자의 비율이 27.9%로 높게 나타남

〈표 - 54〉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3	0.0	1	0.0	4	0.0
12세 이하	1,026	0.6	258	0.3	1,284	0.5
15세 이하	3,922	2.3	715	0.8	4,637	1.8
20세 이하	11,436	6.7	5,043	5.8	16,479	6.4
30세 이하	29,575	17.3	13,984	16.2	43,559	16.9
40세 이하	37,924	22.2	17,171	19.9	55,095	21.4
50세 이하	40,582	23.8	21,932	25.4	62,514	24.3
60세 이하	30,983	18.2	18,166	21.0	49,149	19.1
60세 초과	15,072	8.8	9,112	10.5	24,184	9.4
미상	125	0.1	42	0.0	167	0.1
계	170,648	100.0	86,424	100.0	257,072	100.0

〈그림 - 58〉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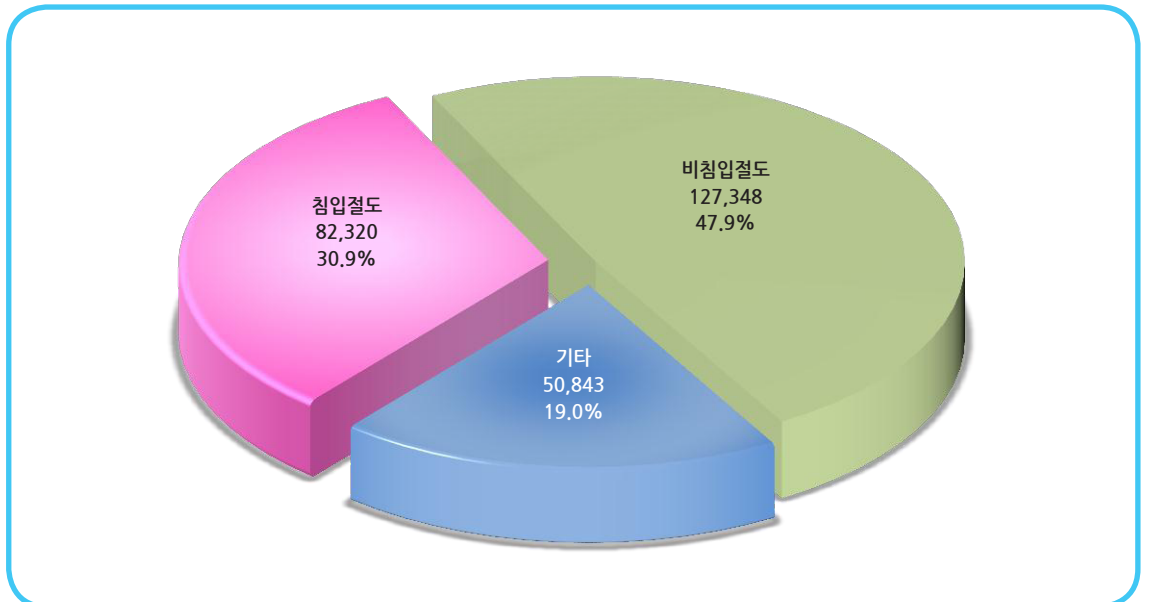
- 절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6.4%, 여성이 33.6%로, 여성보다 남성의 절도피해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절도범죄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세 이하 21.4%, 60세 이하 19.1% 순으로 나타남
- 절도범죄 피해자 중 남성과 여성 모두 50세 이하에서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로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층에서 절도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 55> 절도범죄 수법

단위 : 건, %

범죄수법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침입절도	빈집 절도	23,753	8.9
	사무실 절도	3,615	1.4
	공장 절도	1,393	0.5
	상점 절도	17,875	6.7
	숙박업소 절도	1,079	0.4
	기타 침입절도	34,605	13.0
비침입절도	소매치기 절도	1,454	0.5
	날치기 절도	746	0.3
	치기절도(기타)	4,409	1.7
	들치기 절도	23,128	8.7
	속임수 절도	2,967	1.1
	기타 비침입절도	94,644	35.6
기타	차량절도	5,636	2.1
	오토바이 절도	13,365	5.0
	자전거 절도	22,357	8.4
	축산물 절도	571	0.2
	기타 절도	8,914	3.3
미상		5,711	2.1
계		266,222	100.0

<그림 - 59> 절도범죄 수법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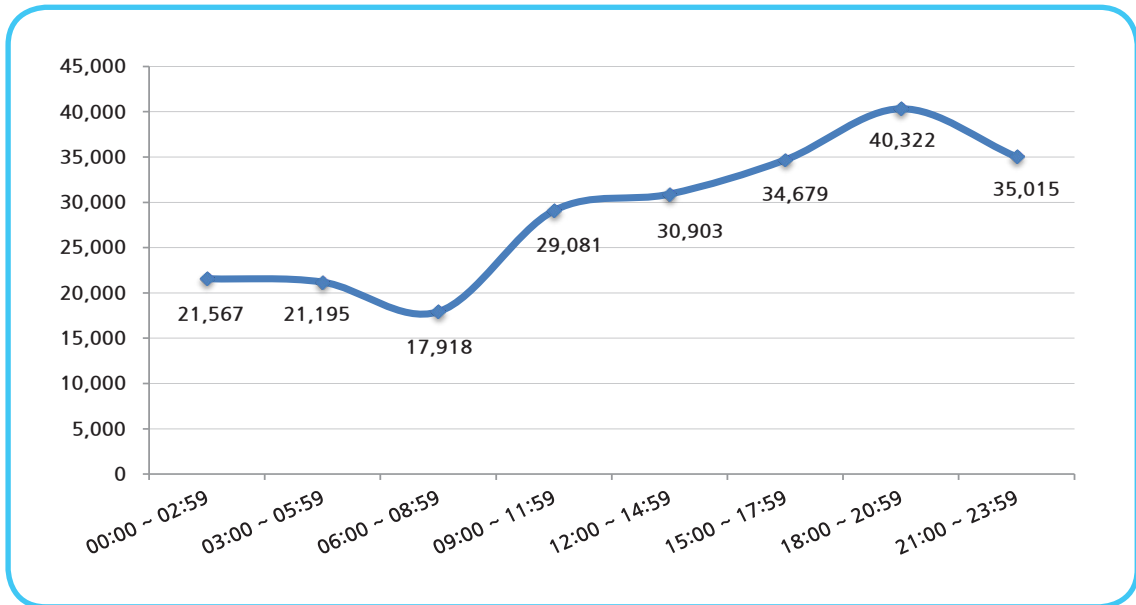
- 절도범죄를 수법에 따라 살펴본 결과, 비침입절도(47.9%)가 침입절도(30.9%)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미상제외)
- 침입절도 중에서는 빈집 절도(8.9%)가 가장 많았고, 비침입절도 중에서는 들치기 절도(8.7%)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중에는 자전거 절도(8.4%), 오토바이 절도(5.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 56> 절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21,567	8.1
03 : 00 ~ 05 : 59		21,195	8.0
06 : 00 ~ 08 : 59		17,918	6.7
09 : 00 ~ 11 : 59		29,081	10.9
12 : 00 ~ 14 : 59		30,903	11.6
15 : 00 ~ 17 : 59		34,679	13.0
18 : 00 ~ 20 : 59		40,322	15.1
21 : 00 ~ 23 : 59		35,015	13.2
미상		35,542	13.4
계		266,222	100.0

<그림 - 60> 절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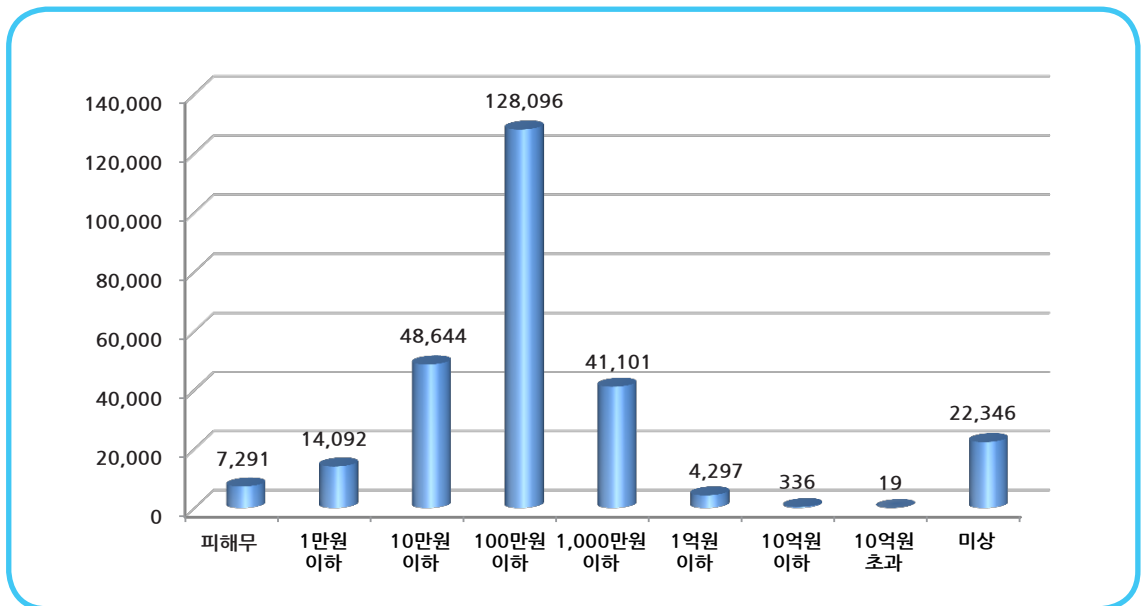
- 절도범죄는 저녁 시간인 18 : 00~20 : 59 시간대에 15.1%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21 : 00~23 : 59 시간대에 13.2%의 범죄가 발생함
- 반면, 새벽 시간인 00:00시부터 아침 시간인 06 : 00~08 : 59 시간대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 57> 절도범죄 피해금액

단위 : 건, %

피해금액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7,291	2.7
1만원 이하		14,092	5.3
10만원 이하		48,644	18.3
100만원 이하		128,096	48.1
1,000만원 이하		41,101	15.4
1억원 이하		4,297	1.6
10억원 이하		336	0.1
10억원 초과		19	0.0
미상		22,346	8.4
계		266,222	100.0

<그림 - 61> 절도범죄 피해금액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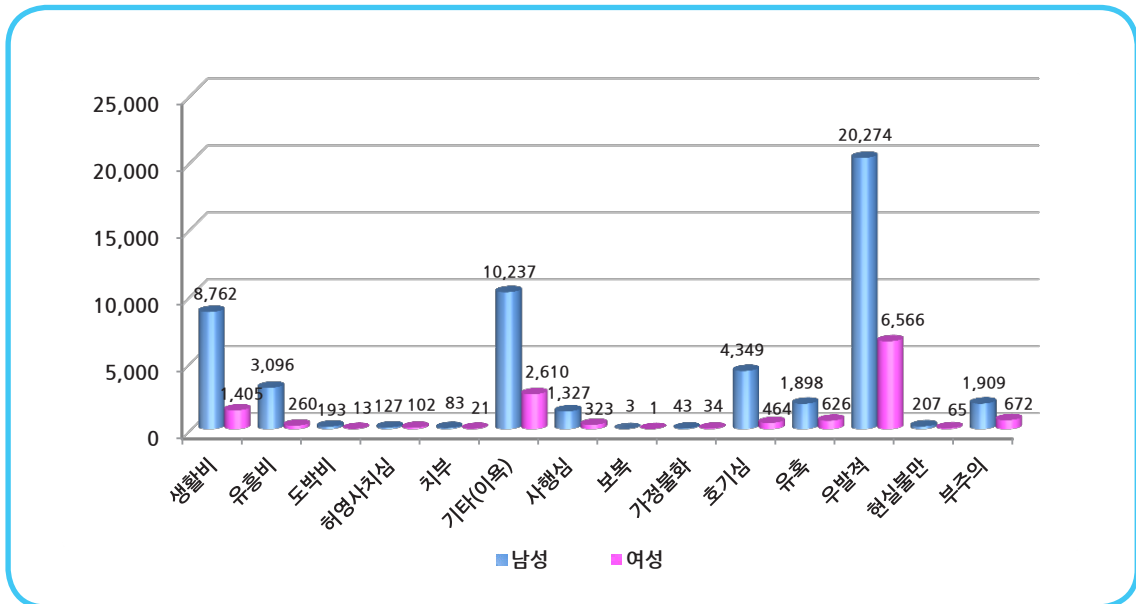
- 절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0만원 이하 18.3%, 1,000만원 이하 15.4% 순으로 나타남
- 절도범죄로 보고되었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2.7%로 나타남

〈표 - 58〉 절도 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8,762	11.6	1,405	7.1	10,167	10.6
유혹비	3,096	4.1	260	1.3	3,356	3.5
도박비	193	0.3	13	0.1	206	0.2
허영사치심	127	0.2	102	0.5	229	0.2
치부	83	0.1	21	0.1	104	0.1
기타(이욕)	10,237	13.5	2,610	13.1	12,847	13.4
사행심	1,327	1.8	323	1.6	1,650	1.7
보복	3	0.0	1	0.0	4	0.0
가정불화	43	0.1	34	0.2	77	0.1
호기심	4,349	5.7	464	2.3	4,813	5.0
유혹	1,898	2.5	626	3.1	2,524	2.6
우발적	20,274	26.8	6,566	33.0	26,840	28.1
현실불만	207	0.3	65	0.3	272	0.3
부주의	1,909	2.5	672	3.4	2,581	2.7
기타	17,579	23.2	4,977	25.0	22,556	23.6
미상	5,666	7.5	1,753	8.8	7,419	7.8
계	75,753	100.0	19,892	100.0	95,645	100.0

〈그림 - 62〉 절도 범죄자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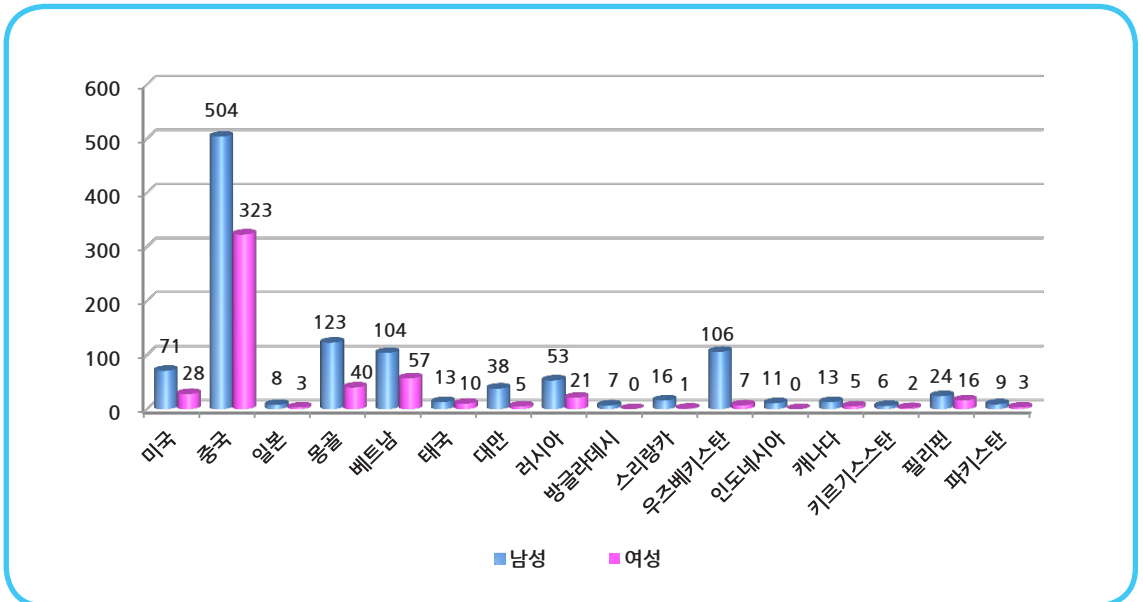
-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경우가 28.1%로 가장 높고, 기타(이욕)이 13.4%, 생활비 10.6% 순으로 나타남
- 남성 절도범죄자의 경우 우발적 26.8%, 기타(이욕) 13.5%, 생활비 11.6% 순으로 나타남. 여성 절도범죄자의 경우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남성과 같이 우발적(33.0%), 기타(이욕) 13.1%, 생활비(7.1%) 순으로 나타남. 절도범죄자의 경우 여성의 우발적 비율(33.0%)이 남성(26.8%)보다 1.2 배 더 높게 나타남

〈표 - 59〉 절도 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성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74,530	98.4	19,341	97.2	93,871	98.1		
미국	71	0.1	28	0.1	99	0.1		
중국	504	0.7	323	1.6	827	0.9		
일본	8	0.0	3	0.0	11	0.0		
몽골	123	0.2	40	0.2	163	0.2		
베트남	104	0.1	57	0.3	161	0.2		
태국	13	0.0	10	0.1	23	0.0		
대만	38	0.1	5	0.0	43	0.0		
러시아	53	0.1	21	0.1	74	0.1		
방글라데시	7	0.0	0	0.0	7	0.0		
스리랑카	16	0.0	1	0.0	17	0.0		
우즈베키스탄	106	0.1	7	0.0	113	0.1		
인도네시아	11	0.0	0	0.0	11	0.0		
캐나다	13	0.0	5	0.0	18	0.0		
키르기스스탄	6	0.0	2	0.0	8	0.0		
필리핀	24	0.0	16	0.1	40	0.0		
파키스탄	9	0.0	3	0.0	12	0.0		
기타	117	0.2	30	0.2	147	0.2		
계	75,753	100.0	19,892	100.0	95,645	100.0		

〈그림 - 63〉 절도 범죄자 국적 (한국 제외, 단위 : 명)



- 절도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이 93,871명(98.1%), 외국인이 1,774명(1.9%)임.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 국적이 827명(0.9%)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 163명(0.2%), 베트남 161명(0.2%)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절도범죄자의 성별 국적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중국이 504명(0.7%)으로 가장 많고, 몽골 123명(0.2%), 우즈베키스탄 106명(0.1%)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도 중국이 323명(1.6%)로 가장 많고, 베트남 57명(0.3%), 몽골 40명(0.2%)순으로 나타남

라.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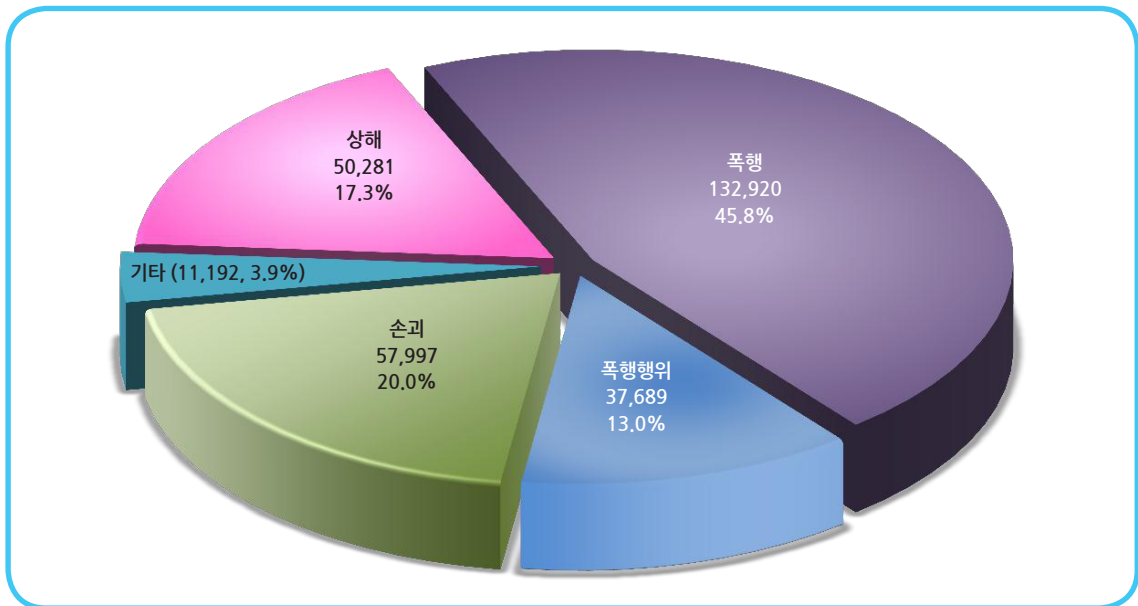
〈표 - 60〉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죄 중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상해	50,281	17.3
	폭행	132,920	45.8
	폭력행위	37,689	13.0
	손괴	57,997	20.0
	기타	11,192	3.9
	계	290,079	100.0

* 기타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그림 - 64〉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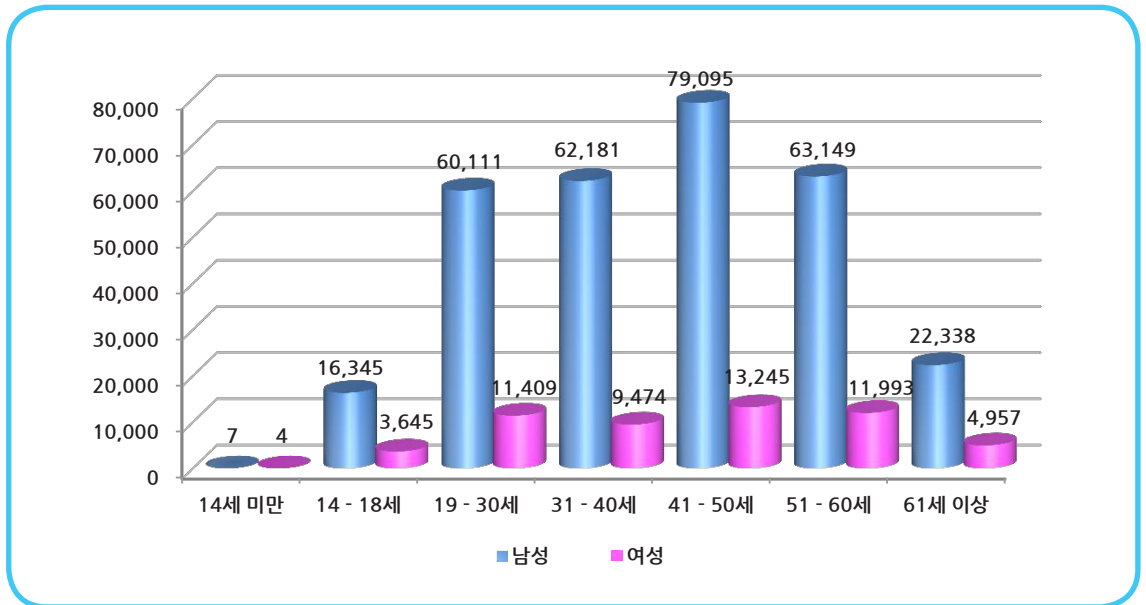
- 폭력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폭행이 4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괴 20.0%, 상해 17.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3.0% 순으로 나타남

〈표 - 61〉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단위 : 명,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7	0.0	4	0.0	11	0.0
14세 - 18세	16,345	5.4	3,645	6.6	19,990	5.6
19세 - 30세	60,111	19.8	11,409	20.8	71,520	20.0
31세 - 40세	62,181	20.5	9,474	17.3	71,655	20.0
41세 - 50세	79,095	26.1	13,245	24.2	92,340	25.8
51세 - 60세	63,149	20.8	11,993	21.9	75,142	21.0
61세 이상	22,338	7.4	4,957	9.0	27,295	7.6
미상	213	0.1	109	0.2	322	0.1
계	303,439	100.0	54,836	100.0	358,275	100.0

〈그림 - 65〉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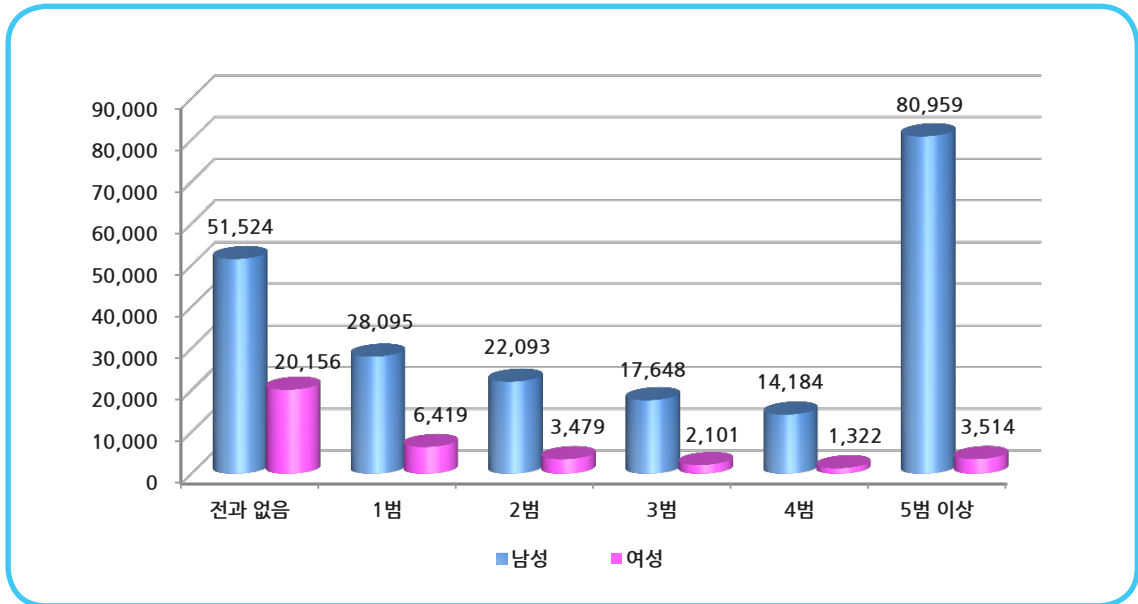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는 남성이 84.7%, 여성이 15.3%로 남성이 5.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50대가 21.0%, 20대(19세-30세)와 30대가 각각 20.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남성(26.1%)과 여성(24.2%) 모두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은 50대(20.8%), 30대(20.5%)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50대(21.9%), 20대(20.8%) 순으로 나타남

〈표 - 62〉 폭력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51,524	17.0	20,156	36.8	71,680	20.0
1범	28,095	9.3	6,419	11.7	34,514	9.6
2범	22,093	7.3	3,479	6.3	25,572	7.1
3범	17,648	5.8	2,101	3.8	19,749	5.5
4범	14,184	4.7	1,322	2.4	15,506	4.3
5범 이상	80,959	26.7	3,514	6.4	84,473	23.6
미상	88,936	29.3	17,845	32.5	106,781	29.8
계	303,439	100.0	54,836	100.0	358,275	100.0

〈그림 - 66〉 폭력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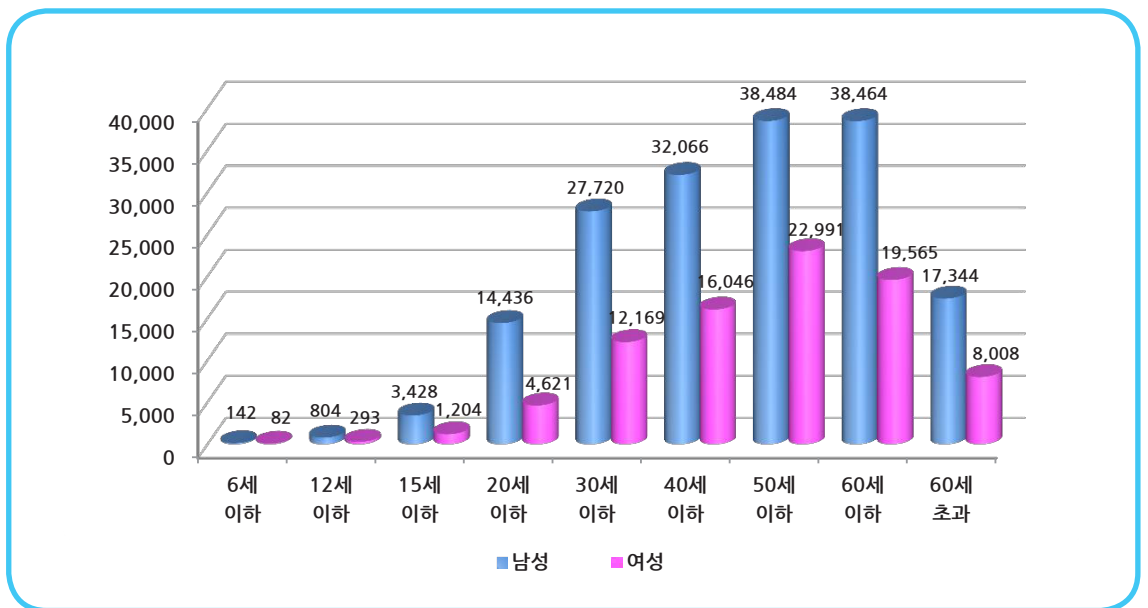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53.8%가 1범 이상의 전과 경력이 있는 가운데, 특히 5범 이상의 비율이 26.7%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전과 없음이 36.8%로 높은 편이며, 1범 이상의 전과경력이 있는 비율도 30.6%로 나타남

〈표 - 63〉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42	0.1	82	0.1	224	0.1
12세 이하	804	0.5	293	0.3	1,097	0.4
15세 이하	3,428	2.0	1,204	1.4	4,632	1.8
20세 이하	14,436	8.3	4,621	5.4	19,057	7.4
30세 이하	27,720	16.0	12,169	14.3	39,889	15.5
40세 이하	32,066	18.5	16,046	18.9	48,112	18.7
50세 이하	38,484	22.3	22,991	27.1	61,475	23.8
60세 이하	38,464	22.2	19,565	23.0	58,029	22.5
60세 초과	17,344	10.0	8,008	9.4	25,352	9.8
미상	56	0.0	14	0.0	70	0.0
계	172,944	100.0	84,993	100.0	257,937	100.0

〈그림 - 67〉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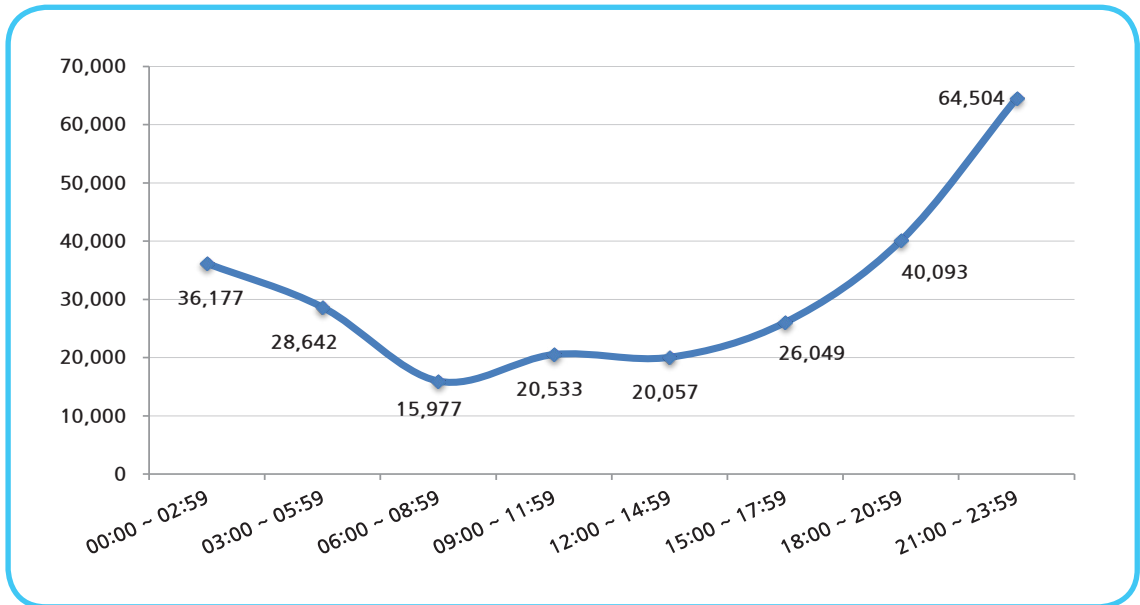
- 폭력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7.0%, 여성이 33.0%로, 폭력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범죄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세 이하 22.5%, 40세 이하 18.7% 순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50세 이하와 6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64> 폭력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36,177	12.5
03 : 00 ~ 05 : 59		28,642	9.9
06 : 00 ~ 08 : 59		15,977	5.5
09 : 00 ~ 11 : 59		20,533	7.1
12 : 00 ~ 14 : 59		20,057	6.9
15 : 00 ~ 17 : 59		26,049	9.0
18 : 00 ~ 20 : 59		40,093	13.8
21 : 00 ~ 23 : 59		64,504	22.2
미 상		38,047	13.1
계		290,079	100.0

<그림 - 68> 폭력범죄 발생시간 (미상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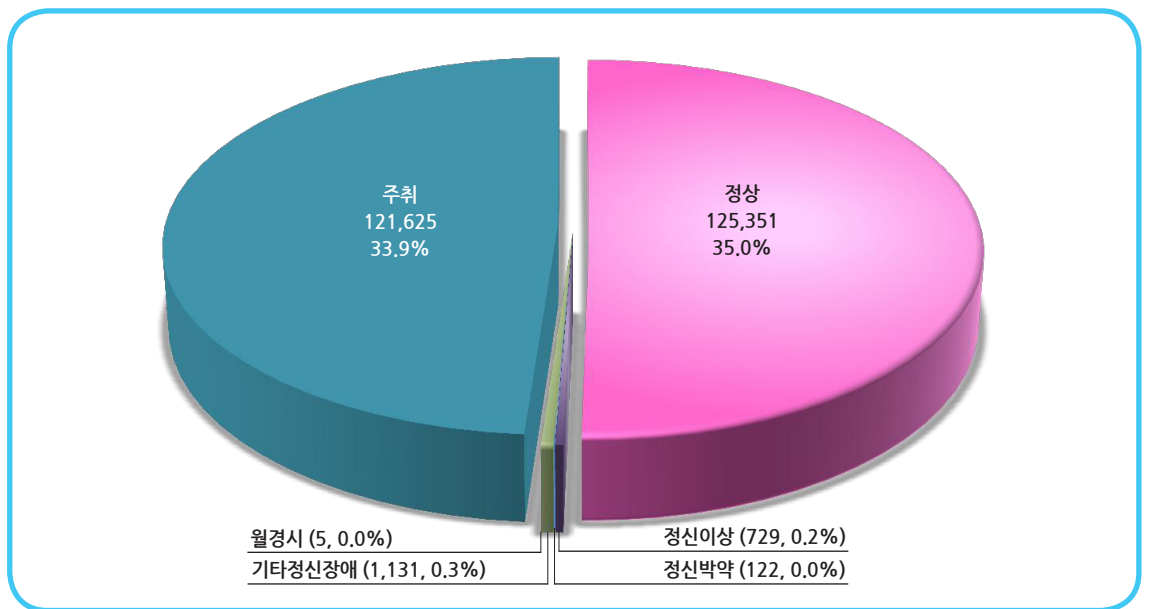
- 폭력범죄는 늦은 밤 시간인 21 : 00~23 : 59 시간대(22.2%)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른 저녁 시간인 18 : 00~20 : 59 시간대(13.8%) 새벽 시간인 00 : 00~02 : 59 시간대(12.5%)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 65〉 폭력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명, %

정신상태	구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125,351	35.0
정신이상		729	0.2
정신박약		122	0.0
기타정신장애		1,131	0.3
주취		121,625	33.9
월경시		5	0.0
미상		109,312	30.5
계		358,275	100.0

〈그림 - 69〉 폭력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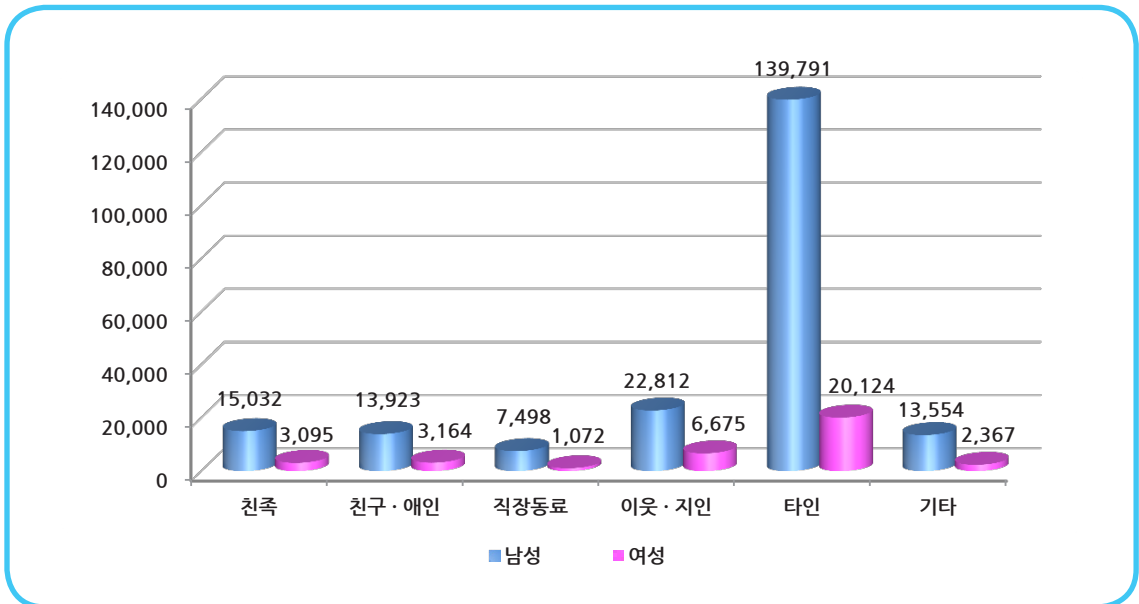
- 폭력범죄는 정상적인 상태가 35.0%, 주취 상태가 33.9%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신이상은 0.2%, 기타 정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0.3%로 낮게 나타남

〈표 - 66〉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15,032	4.9	3,095	5.6	18,127	5.1
친구·애인	13,923	4.6	3,164	5.8	17,087	4.8
직장동료	7,498	2.5	1,072	2.0	8,570	2.4
이웃·지인	22,812	7.5	6,675	12.2	29,487	8.3
타인	139,791	46.1	20,124	36.7	159,915	44.6
기타	13,554	4.3	2,367	4.3	15,921	4.5
미상	90,829	29.9	18,339	33.4	109,168	30.5
계	303,439	100.0	54,836	100.0	358,275	100.0

〈그림 - 70〉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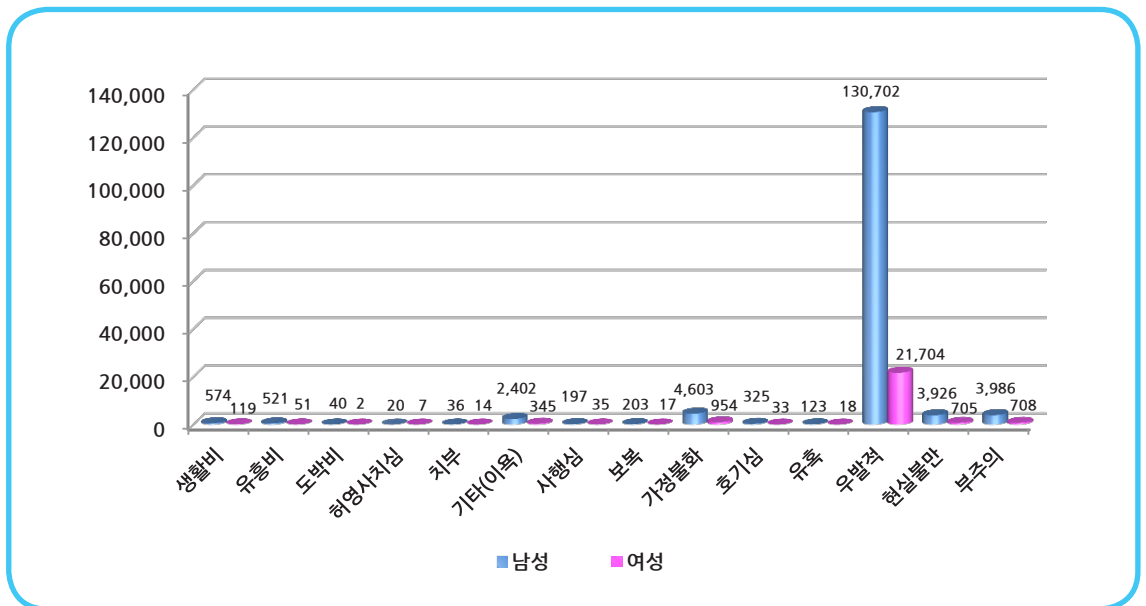
- 폭력범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8.3%, 친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 5.1% 순으로 나타남
- 폭력범죄자 중 남성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46.1%로 높고, 여성 역시 타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36.7%로 높은 편이나, 여성의 경우 이웃이나 지인(12.2%), 친구나 애인(5.8%), 친족(5.6%) 등 면식관계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남성(각 7.5%, 4.6%, 4.9%)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 67> 폭력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574	0.2	119	0.2	693	0.2
유혹비	521	0.2	51	0.1	572	0.2
도박비	40	0.0	2	0.0	42	0.0
허영사치심	20	0.0	7	0.0	27	0.0
치부	36	0.0	14	0.0	50	0.0
기타(이욕)	2,402	0.8	345	0.6	2,747	0.8
사행심	197	0.1	35	0.1	232	0.1
보복	203	0.1	17	0.0	220	0.1
가정불화	4,603	1.5	954	1.7	5,557	1.6
호기심	325	0.1	33	0.1	358	0.1
유혹	123	0.0	18	0.0	141	0.0
우발적	130,702	43.1	21,704	39.6	152,406	42.5
현실불만	3,926	1.3	705	1.3	4,631	1.3
부주의	3,986	1.3	708	1.3	4,694	1.3
기타	64,731	21.3	11,745	21.4	76,476	21.3
미상	91,050	30.0	18,379	33.5	109,429	30.5
계	303,439	100.0	54,836	100.0	358,275	100.0

<그림 - 71> 폭력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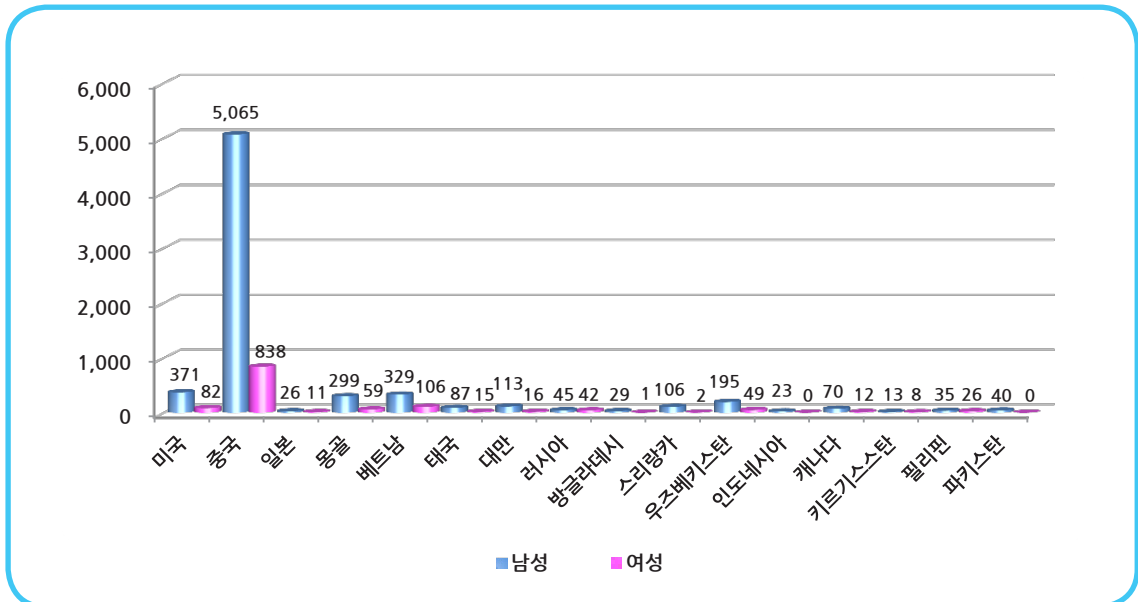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본 결과, 우발적인 경우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불화가 1.6%, 현실불만과 부주의가 각각 1.3% 순으로 나타남
- 폭력범죄자 범행동기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폭력범죄자는 우발적인 경우가 43.1%로 가장 높고, 가정불화가 1.5%, 현실불만과 부주의가 각각 1.3%로 나타남. 여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우발적 39.6%, 가정불화 1.7%, 현실불만과 부주의가 각각 1.3%로 나타나, 남녀 모두 전체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표 - 68〉 폭력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296,120	97.6	53,514	97.6	349,634	97.6
미국	371	0.1	82	0.1	453	0.1
중국	5,065	1.7	838	1.5	5,903	1.6
일본	26	0.0	11	0.0	37	0.0
몽골	299	0.1	59	0.1	358	0.1
베트남	329	0.1	106	0.2	435	0.1
태국	87	0.0	15	0.0	102	0.0
대만	113	0.0	16	0.0	129	0.0
러시아	45	0.0	42	0.1	87	0.0
방글라데시	29	0.0	1	0.0	30	0.0
스리랑카	106	0.0	2	0.0	108	0.0
우즈베키스탄	195	0.1	49	0.1	244	0.1
인도네시아	23	0.0	0	0.0	23	0.0
캐나다	70	0.0	12	0.0	82	0.0
키르기스스탄	13	0.0	8	0.0	21	0.0
필리핀	35	0.0	26	0.0	61	0.0
파키스탄	40	0.0	0	0.0	40	0.0
기타	473	0.2	55	0.1	528	0.1
계	303,439	100.0	54,836	100.0	358,275	100.0

〈그림 - 72〉 폭력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제외, 단위 : 명)



- 폭력범죄자의 국적은 한국(97.6%) 다음으로 중국이 5,903명(1.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53명(0.1%), 베트남 435명(0.1%)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폭력범죄자는 총 8,641명(2.4%)으로 남성 폭력범죄자는 총 7,319명 외국인 여성 폭력범죄자는 1,322명으로 집계됨. 남성의 경우 중국 5,065명(1.7%), 미국 371명(0.1%), 베트남 329명(0.1%) 순이며, 여성은 중국 838명(1.5%), 베트남 106명(0.2%), 미국 82명(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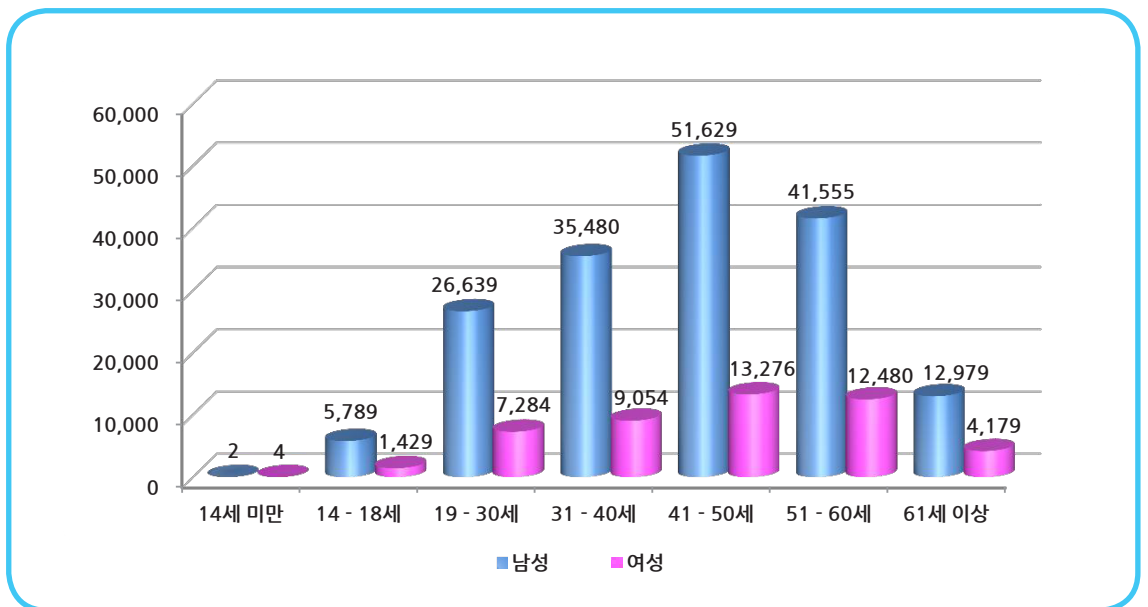
마. 사기

〈표 - 69〉 사기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성별 \ 연령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2	0.0	4	0.0	6	0.0
14세 - 18세	5,789	3.3	1,429	3.0	7,218	3.2
19세 - 30세	26,639	15.3	7,284	15.2	33,923	15.3
31세 - 40세	35,480	20.4	9,054	18.9	44,534	20.0
41세 - 50세	51,629	29.6	13,276	27.7	64,905	29.2
51세 - 60세	41,555	23.9	12,480	26.0	54,035	24.3
61세 이상	12,979	7.4	4,179	8.7	17,158	7.7
미 상	159	0.1	235	0.5	394	0.2
계	174,232	100.0	47,941	100.0	222,173	100.0

〈그림 - 73〉 사기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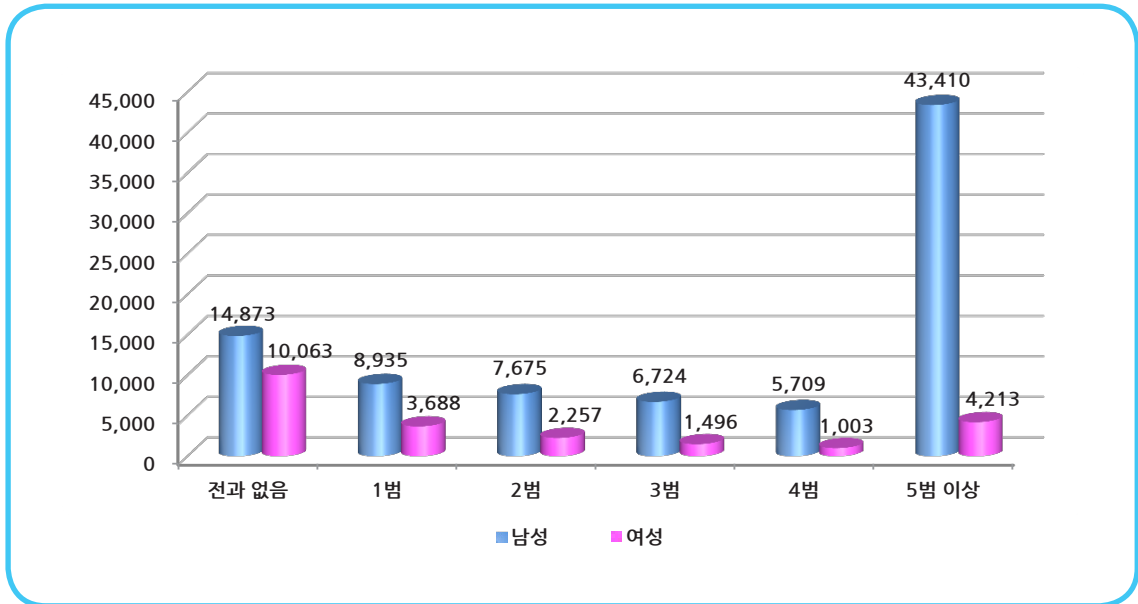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는 남성이 78.4%, 여성이 21.6%로 남성이 여성의 3.6배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9.2%로 가장 높은 가운데, 50대 24.3%, 30대 20.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남

〈표 - 70〉 사기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성 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4,873	8.5	10,063	21.0	24,936	11.2
1범		8,935	5.1	3,688	7.7	12,623	5.7
2범		7,675	4.4	2,257	4.7	9,932	4.5
3범		6,724	3.9	1,496	3.1	8,220	3.7
4범		5,709	3.3	1,003	2.1	6,712	3.0
5범 이상		43,410	24.9	4,213	8.8	47,623	21.4
미상		86,906	49.9	25,221	52.6	112,127	50.5
계		174,232	100.0	47,941	100.0	222,173	100.0

〈그림 - 74〉 사기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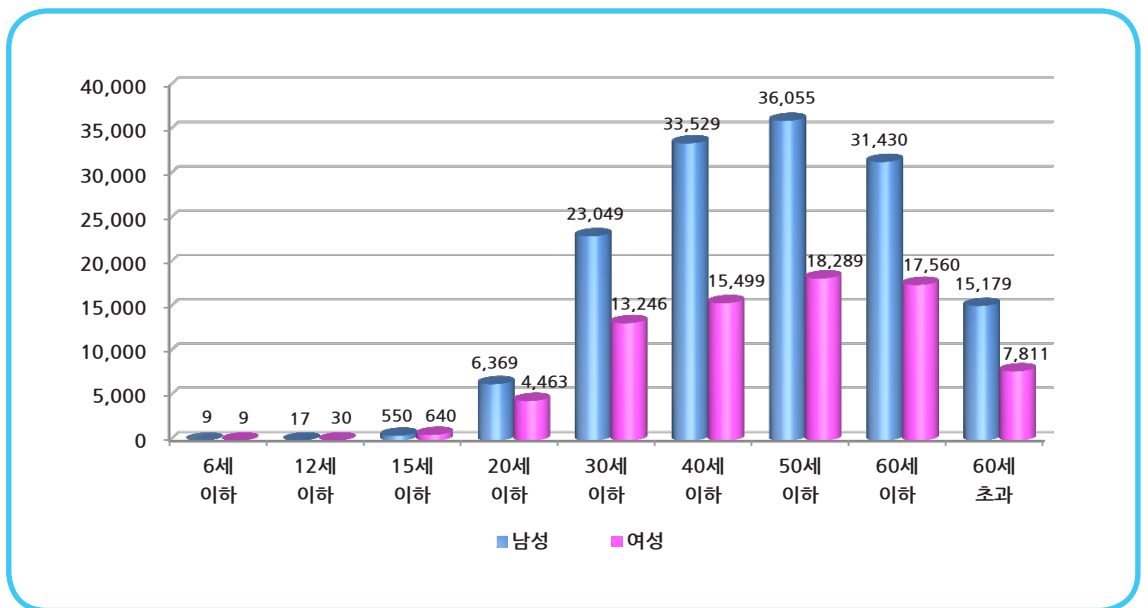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1범 이상의 전과경력이 있는 비율이 41.6%로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전과 없음이 21.0%로 남성(8.5%)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이며, 1범 이상의 전과경력이 있는 비율은 26.4%로 나타남
-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이 24.9%로 여성 8.8%보다 2.8배 높은 수준임

〈표 - 71〉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성 별 연 령	남 성		여 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9	0.0	9	0.0	18	0.0
12세 이하	17	0.0	30	0.0	47	0.0
15세 이하	550	0.4	640	0.8	1,190	0.5
20세 이하	6,369	4.3	4,463	5.7	10,832	4.8
30세 이하	23,049	15.7	13,246	17.1	36,295	16.2
40세 이하	33,529	22.9	15,499	20.0	49,028	21.9
50세 이하	36,055	24.6	18,289	23.6	54,344	24.2
60세 이하	31,430	21.4	17,560	22.6	48,990	21.8
60세 초과	15,179	10.4	7,811	10.1	22,990	10.3
미 상	440	0.3	112	0.1	552	0.2
계	146,627	100.0	77,659	100.0	224,286	100.0

〈그림 - 75〉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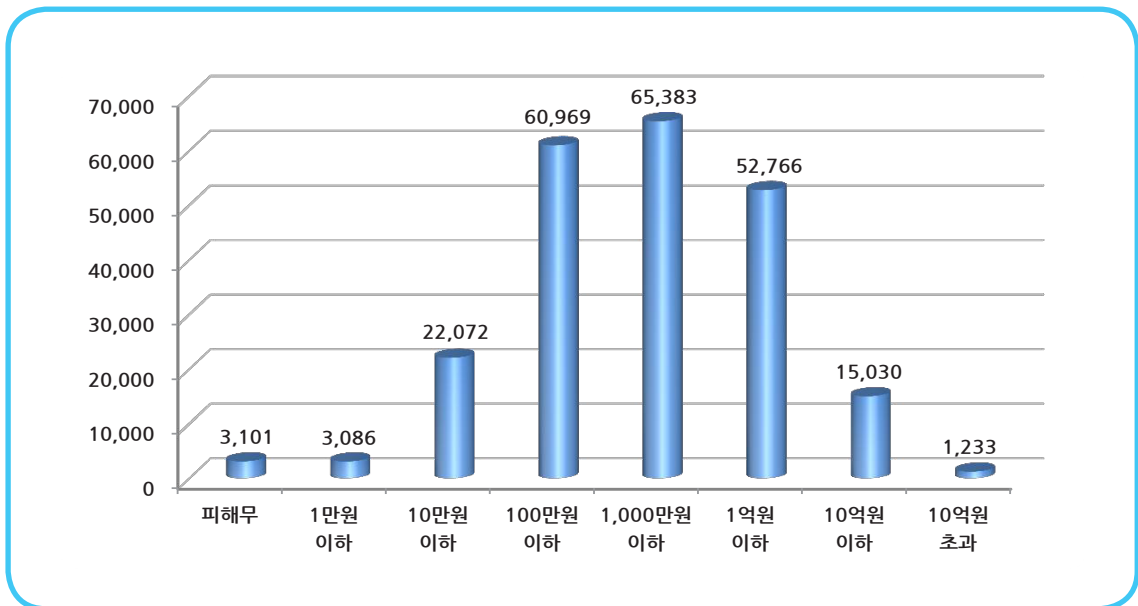
- 사기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5.4%, 여성이 34.6%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율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4.2%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40세 이하 21.9%, 60세 이하 21.8% 순으로 나타남. 40대 이상의 피해자 비율이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40대(50세 이하)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 72> 사기범죄 피해금액

단위 : 건, %

피해금액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3,101	1.3
1만원 이하		3,086	1.3
10만원 이하		22,072	9.3
100만원 이하		60,969	25.6
1,000만원 이하		65,383	27.4
1억원 이하		52,766	22.1
10억원 이하		15,030	6.3
10억원 초과		1,233	0.5
미상		14,769	6.2
계		238,409	100.0

<그림 - 76> 사기범죄 피해금액 (미상 제외,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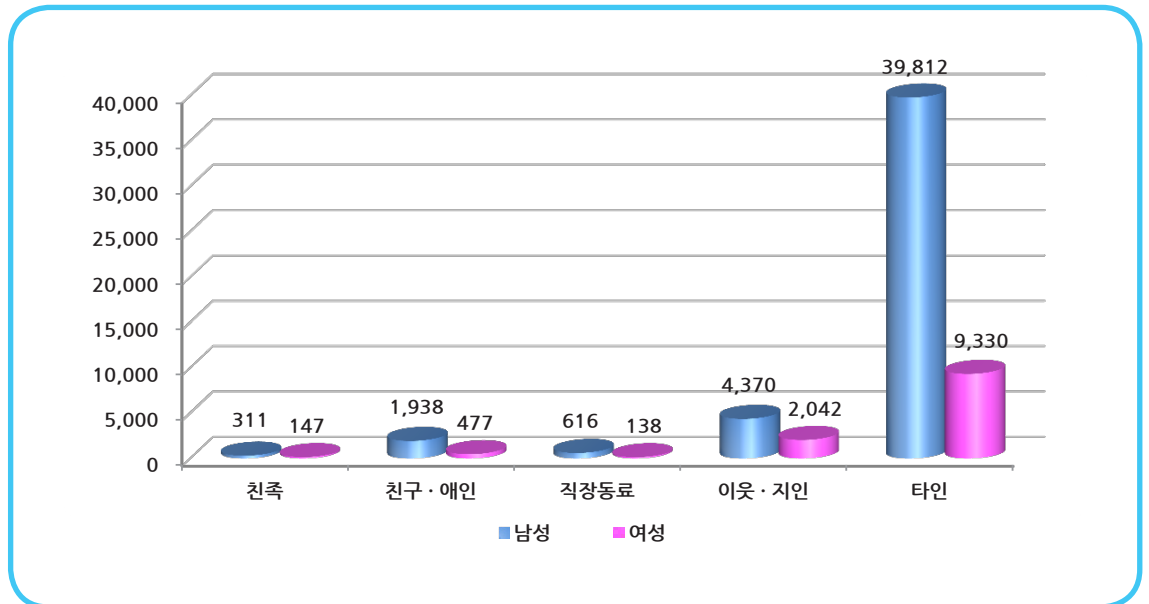
-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27.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하 25.6%, 1억원 이하 22.1% 순으로 나타남
- 사기로 인해 피해가 없는 비율은 1.3%로 나타났으며,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비율도 6.3%를 차지함

〈표 - 73〉 사기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311	0.2	147	0.4	458	0.2
친구·애인	1,938	1.1	477	1.0	2,415	1.1
직장동료	616	0.4	138	0.3	754	0.3
이웃·지인	4,370	2.5	2,042	4.3	6,412	2.9
타인	39,812	22.8	9,330	19.5	49,142	22.1
기타	38,810	22.1	10,086	21.0	48,896	22.0
미상	88,375	50.7	25,721	53.7	114,096	51.4
계	174,232	100.0	47,941	100.0	222,173	100.0

〈그림 - 77〉 사기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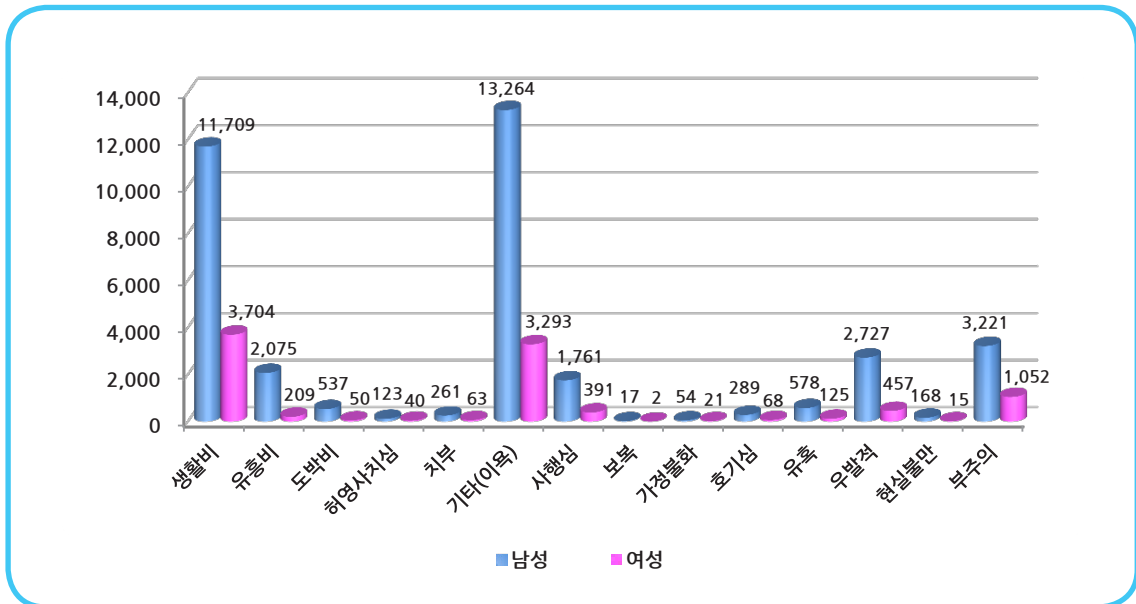
- 사기범죄에서 기타를 제외하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2.1%로 가장 높으며, 이웃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2.9%로 나타남
- 남녀 사기범죄자 모두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웃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 74〉 사기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11,709	6.7	3,704	7.7	15,413	6.9
유혹비	2,075	1.2	209	0.4	2,284	1.0
도박비	537	0.3	50	0.1	587	0.3
허영사치심	123	0.1	40	0.1	163	0.1
치부	261	0.1	63	0.1	324	0.1
기타(이욕)	13,264	7.6	3,293	6.9	16,557	7.5
사행심	1,761	1.0	391	0.8	2,152	1.0
보복	17	0.0	2	0.0	19	0.0
가정불화	54	0.0	21	0.0	75	0.0
호기심	289	0.2	68	0.1	357	0.2
유혹	578	0.3	125	0.3	703	0.3
우발적	2,727	1.6	457	1.0	3,184	1.4
현실불만	168	0.1	15	0.0	183	0.1
부주의	3,221	1.8	1,052	2.2	4,273	1.9
기타	48,649	27.9	12,598	26.3	61,247	27.6
미상	88,799	51.0	25,853	53.9	114,652	51.6
계	174,232	100.0	47,941	100.0	222,173	100.0

〈그림 - 78〉 사기 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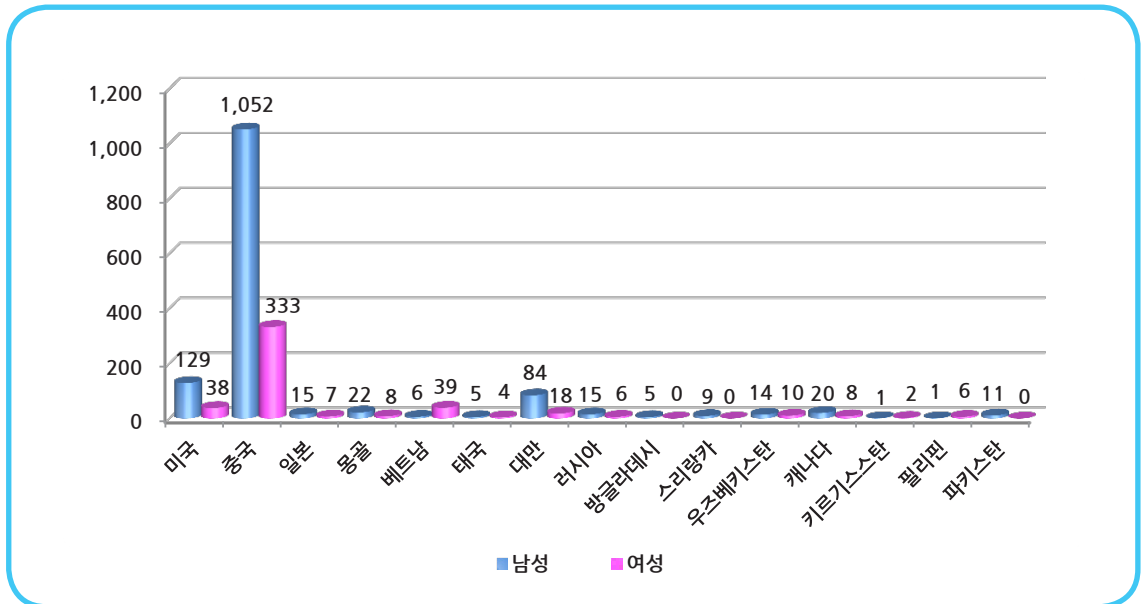
- 사기 범죄자 범행동기를 살펴본 결과, 기타(이욕)이 7.5%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를 이유로 범행을 한 경우가 6.9%, 부주의 1.9% 순으로 나타남
- 사기 범죄자 성별에 따른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남성 사기범죄자의 경우 기타(이욕)을 이유로 한 경우가 7.6%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 사기범죄자는 생활비를 이유로 한 경우가 7.7%로 가장 높음

〈표 - 75〉 사기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성 별 국 적	남 성		여 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72,729	99.1	47,436	98.9	220,165	99.1
미국	129	0.1	38	0.1	167	0.1
중국	1,052	0.6	333	0.7	1,385	0.6
일본	15	0.0	7	0.0	22	0.0
몽골	22	0.0	8	0.0	30	0.0
베트남	6	0.0	39	0.1	45	0.0
태국	5	0.0	4	0.0	9	0.0
대만	84	0.0	18	0.0	102	0.0
러시아	15	0.0	6	0.0	21	0.0
방글라데시	5	0.0	0	0.0	5	0.0
스리랑카	9	0.0	0	0.0	9	0.0
우즈베키스탄	14	0.0	10	0.0	24	0.0
인도네시아	0	0.0	0	0.0	0	0.0
캐나다	20	0.0	8	0.0	28	0.0
키르기스스탄	1	0.0	2	0.0	3	0.0
필리핀	1	0.0	6	0.0	7	0.0
파키스탄	11	0.0	0	0.0	11	0.0
기타	114	0.1	26	0.1	140	0.1
계	174,232	100.0	47,941	100.0	222,173	100.0

〈그림 - 79〉 사기 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제외, 단위 : 명)



- 사기범죄자의 국적은 한국 220,165명(99.1%)을 제외하면, 중국이 1,385명(0.6%)으로 가장 많고, 미국 167명(0.1%), 대만 102명(0.0%) 순으로 나타남
- 남성 사기범죄자 174,232명 중 외국인 남성 사기범죄자가 1,503명(0.9%)이고, 이 중 중국인이 1,052명, 미국이 129명, 대만 84명 순으로 나타남. 여성 사기범죄자 중 외국인은 505명(1.1%)으로, 중국인 333명, 베트남 39명, 미국 38명 순임